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Planning to list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Reenactment as th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정대영 외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 2020-62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인 이 한 주

발 행 처 경기연구원

주 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 페이지 www.gri.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0  
I S B N 979-11-9058-691-7 93320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분석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추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조선 정조 시대부터 전승된 정조대왕능행차는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795년(정조 19년) 을묘원행(乙卯園幸)을 복원하면서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 축제로 자리매김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을 통해 역사적·시민 중심적 성격을 규명하고, 문화적 재창조 기반을 확립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이 시민참여(공동체적 가치)와 전승 환경(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재기준 충족방안을 모색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과제 제시
- 본 과제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학술연구, 행정추진, 대외홍보의 3개 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학술연구과제 : 재창조 기반 확보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유물, 기록물의 훼손 및 변질에 대비하고, 시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 추진
    -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평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조 관련 연구 확산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추진
  - 행정추진과제 : 전승공동체 정립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를 설립하고, 시민주도의 상향식 추진조직으로 구성

- 축제 평가·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축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충족을 위해 경기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추진
- 대외홍보과제 : 시민참여 확대
-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의미와 전승 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거점 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을 조성
  - 정조문화권의 문화유산과 정조의 사상을 담은 축제 아이덴티티(Festival Identity)를 구축하여 관련 지자체들의 통합브랜딩을 추진하고 상품화 연계
  - 미디어파사드 전시 및 야간공연 활성화를 통해 축제 퍼레이드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인지도 개선
  - 정조 관련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 유도

# Contents

## 제1장 서론 /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	7

## 제2장 현황 및 실태분석 / 11

1. 정조대왕능행차 현황 .....	11
1)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 .....	11
2) 행차 관련 의식과 행사 .....	17
3) 전승과 지역발전 .....	18
2.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연구동향 분석 .....	21
1) 역사적 성격 .....	21
2) 행차 관련 의식과 문화 .....	23
3) 정조대왕능행차의 전승·활용방안 .....	26
3. '정조대왕능행차' 빅데이터 분석 .....	31
1) 방문객 데이터 분석 .....	31
2) 포털/SNS 분석 .....	37

# Contents

## 제3장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분석 / 41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이해 .....	41
1)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	41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절차 .....	47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50
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및 추진현황 .....	54
1)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	54
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현황 .....	56
3)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사례 .....	58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사 종목 사례분석 .....	60
1) 사례분석 개요 .....	60
2) 주요 사례분석 .....	61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66

## 제4장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69

1.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	69
1) 분석배경 .....	69
2)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	70
3) 종합분석 .....	76
2. 경제적 가치평가 필요성 검토 .....	77
1) 도입 필요성 .....	77
2) 적용방안 .....	78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충족여부 검토 .....	80
1) 검토 개요 .....	80
2)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검토 및 충족방안 .....	80

# Contents

## 제5장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 87

1. 기본방향 및 전략 .....	87
2. 주요 추진과제 .....	88
1) 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 설립 .....	88
2)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Larchiveum) 조성사업 .....	89
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저작권 등록 .....	93
4)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제적 가치평가 학술연구용역 .....	96
5) 정조 관련 연구 확산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99
6) 축제 평가·모니터링 사업 .....	100
7) 축제 아이덴티티(Festival Identity) 개발 및 상품화 .....	101
8) 미디어파사드 전시 및 야간공연 활성화 .....	102
9) 정조 관련 인물 스토리텔링 .....	104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7

1. 결론 .....	107
2. 정책제언 .....	109

## ▶ 참고문헌 / 111

## ▶ Abstract / 117

#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 .....	7
〈표 2-1〉 을묘년 원행 일정 .....	15
〈표 2-2〉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선행연구 .....	28
〈표 2-3〉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전체 관광객 현황 .....	31
〈표 2-4〉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내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	33
〈표 2-5〉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외국인 관광객 국적 및 이동현황 .....	33
〈표 2-6〉 정조 효 문화제 전체 관광객 현황 .....	34
〈표 2-7〉 정조 효 문화제 내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	36
〈표 2-8〉 정조 효 문화제 외국인 관광객 국적 및 이동현황 .....	36
〈표 2-9〉 ‘정조대왕능행차’ 키워드 빈도 분석(상위 30개) .....	38
〈표 3-1〉 유네스코 본부 개요 .....	41
〈표 3-2〉 지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 .....	43
〈표 3-3〉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	44
〈표 3-4〉 세계유산협약 이후 무형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주요 활동 .....	45
〈표 3-5〉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목적 .....	46
〈표 3-6〉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무형문화유산 정의 및 범위 .....	46
〈표 3-7〉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기준 .....	47
〈표 3-8〉 보호 모범사례 평가 기준 .....	48
〈표 3-9〉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51
〈표 3-10〉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속성 비교 .....	55
〈표 3-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유사 종목 사례 .....	60
〈표 3-12〉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	61
〈표 3-13〉 고라니 지방 벨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	62
〈표 3-14〉 포파안의 부활절 행렬 .....	63
〈표 3-15〉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	64
〈표 3-16〉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	65



# 표차례

〈표 4-1〉 화성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 .....	74
〈표 4-2〉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선행연구 .....	79
〈표 5-1〉 국내외 주요 라키비움 도입사례 .....	92
〈표 5-2〉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	94
〈표 5-3〉 정조대왕능행차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거버넌스 그룹별 역할 .....	95
〈표 5-4〉 문화유산의 가치분류 .....	97
〈표 5-5〉 CVM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	98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
[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 .....	5
[그림 1-3] 연구의 수행절차 .....	6
[그림 2-1] 정조대왕능행차 홍보물의 원형을묘정리의궐 반차도 .....	12
[그림 2-2] 화성원행도의 환어행렬도 .....	13
[그림 2-3]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성과 계승 .....	16
[그림 2-4]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개최현황 .....	19
[그림 2-5] 정조의 화성 행차 경로 및 수원 원행로 .....	23
[그림 2-6]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성별 및 연령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	32
[그림 2-7]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전/후 전체 관광객 현황 .....	32
[그림 2-8]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전/후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 .....	32
[그림 2-9] 정조 효 문화제 성별 및 연령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	34
[그림 2-10] 정조 효 문화제 전/후 전체 관광객 현황 .....	35
[그림 2-11] 정조 효 문화제 전/후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 .....	35
[그림 2-12] '정조대왕능행차' 키워드 트렌드 및 워크클라우드 .....	38
[그림 3-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분류 .....	42
[그림 3-2] 연도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지역별) .....	43
[그림 3-3]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간 관계도 .....	48
[그림 3-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 절차 .....	49
[그림 3-5]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50
[그림 3-6]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 .....	54
[그림 3-7] 한국의 탈춤과 장(醬) 문화 .....	56
[그림 3-8]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신청 예상 절차 .....	57
[그림 3-9] 제주해녀문화 기록물 .....	58
[그림 3-10] 연등회 .....	59

# 그림차례

[그림 3-11]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	61
[그림 3-12] 고라니 지방 벨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	62
[그림 3-13] 포파얀의 부활절 행렬 .....	63
[그림 3-14]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	64
[그림 3-15]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	65
[그림 4-1] 조선시대 능행과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적 성격 .....	71
[그림 4-2]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현 .....	72
[그림 4-3] 1970년대 화홍문화제의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	73
[그림 4-4] 정조대왕능행차 길 체험순례 사례 .....	75
[그림 4-5] 정조대왕능행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76
[그림 5-1] 비전 및 미션 .....	87
[그림 5-2]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 개발절차 예시 .....	91
[그림 5-3]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개요 .....	97
[그림 5-4] 2017 제주들불축제 사례 .....	101
[그림 5-5] 수원화성문화제 미디어파사드 적용사례 .....	102



# 제 1 장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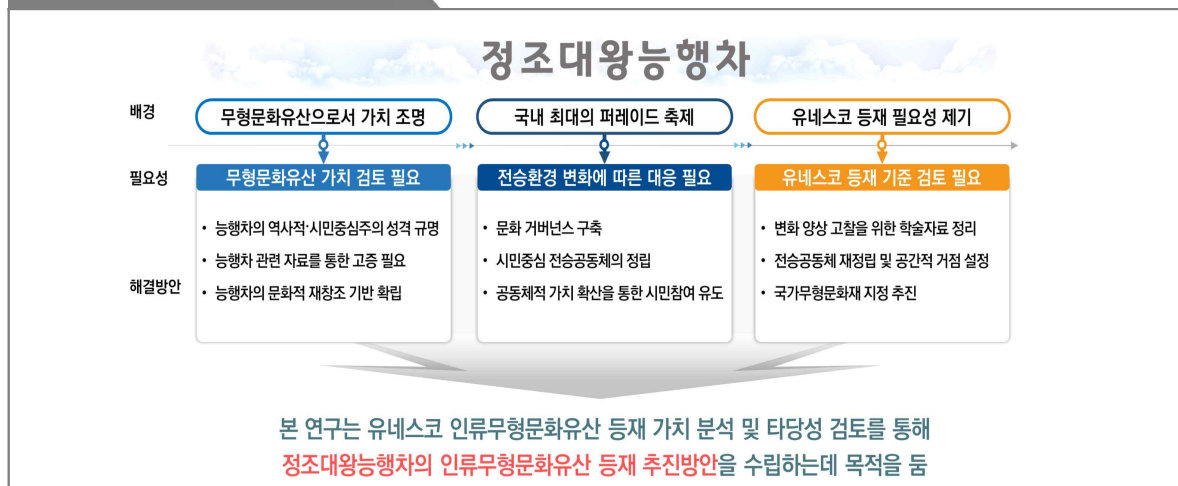
-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의 사상을 토대로 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된 공동체 기반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사회적 결속에 크게 기여
  - 정조의 개혁 정신과 애민 사상, 효 정신 등이 내포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전승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은 능행차 관련 의식과 행사를 매개로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역사공동체 기반을 마련
- 225년 전부터 전승되어 현재는 시민들이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축제로 발전
  - 조선 정조 시대부터 꾸준히 이어진 정조대왕능행차는 1960년대부터 시민들에 의해 재현되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구체적인 고증을 통해 본격적인 복원이 이루어짐
  - 1996년 수원화성 복원을 계기로 시민참여 행사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 지자체 연합축제로 개최됨
  - 2017년에는 화성시, 수원시, 서울시가 공동으로 ‘을묘원행’ 전 구간(59.2km)을 완벽 복원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 대두
  - 정조대왕능행차는 2018년 세계관광기구(UNWTO)가 수여하는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에 선정되며,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 축제로 자리매김
  -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성과 창의성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 제기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축제행렬 등재 종목은 총 13개로 집계
-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20개 종목(2020년 11월 기준)이 등재되어 있으나 정조대왕능행차과 유사한 축제행렬 형태가 등재된 사례는 아직 없음
- 화성시는 2020년부터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
  - 정조대왕능행차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을 토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검토와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이 시급

## 2) 연구의 목적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유네스코 등재기준 검토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등 관련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조대왕능행차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분석 및 등재 가능성 검토,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실증 분석을 수행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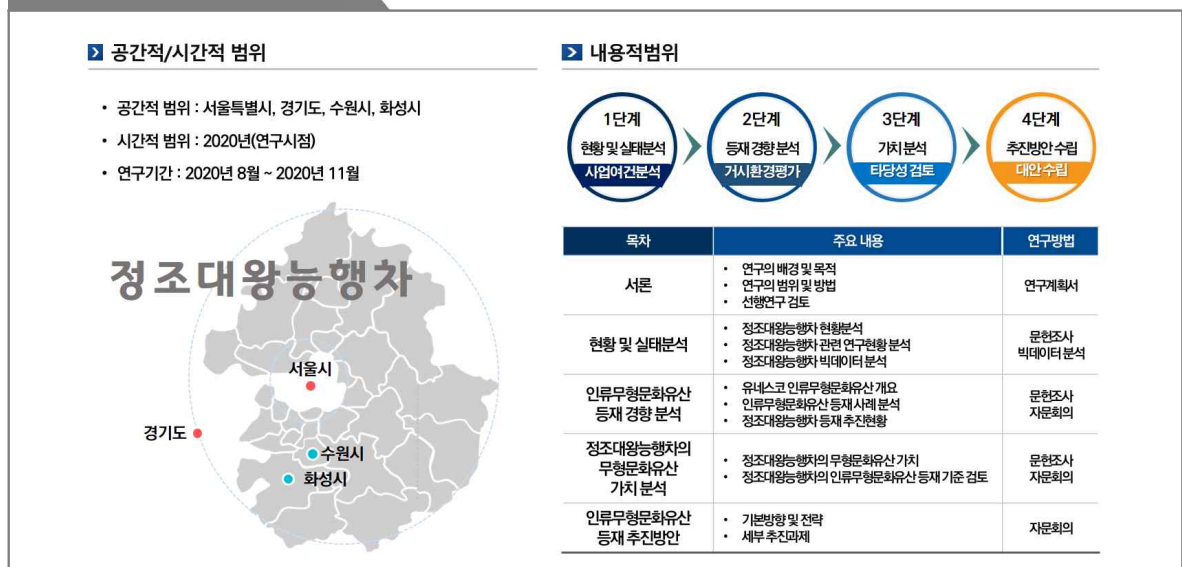
####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서울특별시 등 3개 시
- 기준년도 : 연구시점(2020년)

#### ■ 내용적 범위

- 정조대왕능행차의 현황 및 실태분석 : 정조대왕능행차의 일반현황,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연구 동향, '정조대왕능행차' 빅데이터 분석(방문객 현황 및 소셜 데이터 분석)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분석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개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및 추진현황,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사 종목 사례분석
-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경제적 가치의 필요성 제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충족여부 검토
-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전략 수립 : 등재추진 기본 방향 및 추진과제

[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



## 2) 연구의 방법

### ■ 문헌자료 조사

-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 및 전승현황, 관련 연구동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개념 등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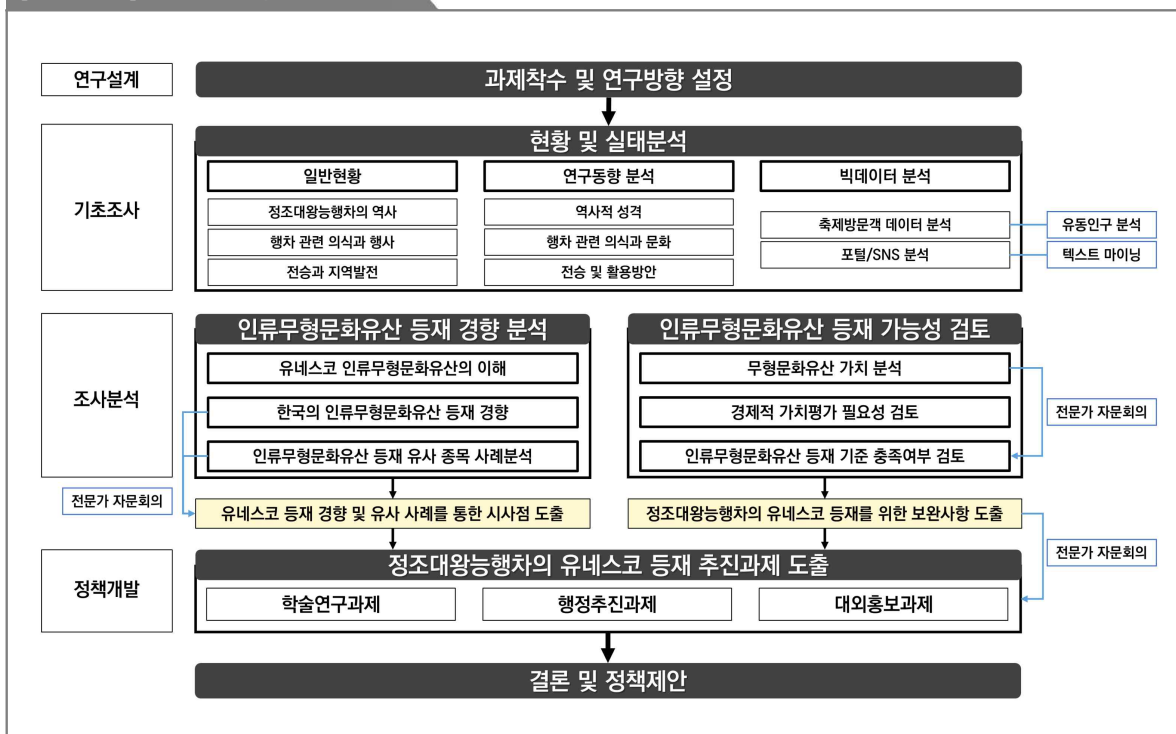
### ■ 사례분석, 빅데이터 분석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빅데이터 분석(축제방문객 현황 및 포털/SNS 데이터 분석)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내·외 등재 사례 검토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술세미나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조대왕능행차의 등재 적합성, 등재기준 충족방안 등 자문
- 학술세미나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검토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전략 논의

[그림 1-3] 연구의 수행절차



### 3.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가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전통문화축제 거버넌스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무형문화유산 가치 :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가치변화, 창조적 계승을 위한 방안, 무형문화유산 관련 제도 변화에 관하여 고찰함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대상에 대한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검토하고, 등재신청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함
- 전통문화축제 거버넌스 : 축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함

〈표 1-1〉 선행연구

구분	저자	제목	주요내용	
무형문화유산 가치	신동욱 (2019)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치변화와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5종목을 대상으로 등재신청서 구성과 내용 분석</li> <li>• ‘영산줄다리기’ 사례를 통해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고찰</li> </ul>	
	임재해 (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관계 정립과 그 가치를 고찰</li> <li>• 현대사회에 맞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방안 제시</li> </ul>	
	이경엽 (2014)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인식과 계승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실 진단을 통해 계승의 방향을 설정 및 실천</li> <li>•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당대 및 미래의 가치가 되기 위한 창조적 계승 방향을 모색</li> </ul>	
	김윤지 (2016)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흐름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여 인류무형문화재 등재의 본질적 가치와 쟁점 모색</li> <li>• 본질적 가치와 자격 규명을 통해 삼국 무형문화재의 등재 갈등을 해소하고 등재의 실천적 척도를 반영</li> </ul>	
	제도 및 정책	김광희 (2014)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li> <li>•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창의적 계승 방안을 논함으로써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방안 제시</li> </ul>
		김용구 (2016)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개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한국 무형문화유산정책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법 모색</li> <li>•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li> </ul>

&lt;표 계속&gt;

구분	저자	제목	주요내용	
무형문화유산 가치	제도 및 정책	박정은 (2017)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다양 성과 현재성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 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산의 범위와 가치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채택의 의미 조명</li> <li>새로운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유산의 범위와 가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존 무형유산 협약과의 차이점 파악</li> </ul>	
	전철수 (2018)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융합적 변화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현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li> <li>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모색</li> </ul>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	나경수 (2012)	진도 상·장례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신청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도 상·장례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타당성과 등재를 위한 사항을 검토하여 등재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li> <li>진도 지역 조사 및 죽음의례과정에 대한 학술 조사를 통해 상·장례 문화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li> </ul>
		박상미 (2015)	'한글' 무형문화재 지정 방안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형문화재와 한글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그 의미 파악</li> <li>한글의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학술적 차원에서의 검토</li> </ul>
		최종호 (2016)	은산별신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기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산별신제의 역사, 보존 및 전승체계, 연구 현황 분석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li> <li>등재신청서를 중심으로 은산별신제의 유네스코 등재신청 추진방안을 제시</li> </ul>
		박상미 (2019)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연구용역: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한복·자수문화와 남북협력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복·자수 관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환경 분석</li> <li>남북한 한복·자수문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한 한복·자수문화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중장기 정책 제안</li> </ul>
전통문화축제 거버넌스	국내 사례	황화석 (2014)	지역축제 유형별 거버넌스 특성 비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전통차사발 축제를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주도형과 관주도형 지역축제의 거버넌스 특성을 비교분석</li> <li>축제 거버넌스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축제조직위원회의 역할 제시</li> </ul>
	해외 사례	송시은 외 (2019)	주민주도형 전통문화축제의 문화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 태국 송크란 축제 사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국의 송크란 축제 사례를 통해 전통문화 축제를 매개로 정부, 기업, 시민의 역할과 상호관계성을 분석</li> <li>전통문화와 계승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축제 육성과 축제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문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시</li> </ul>

## 제 2 장

# 현황 및 실태분석

1. 정조대왕능행차 현황
2.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연구동향 분석
3. '정조대왕능행차' 빅데이터 분석



## 1. 정조대왕능행차 현황

### 1)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

#### ■ 능행차의 의미와 정조대왕능행차의 목적

- 조선시대 국왕의 행차를 행행(行幸)이라고 하며, 능행차는 국왕이 선대 왕과 왕비의 능침에 행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1752~1800, 재위 1776~1800)는 1789년에 아버지인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 배봉산(拜峰山)에서 화산(花山)으로 이장하여 현릉원(顯隆園)이라 칭하고 해마다 1월 혹은 2월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참배함<sup>1)</sup>
- 정조는 1789년 이후로 매년 원행을 시행함으로써 화성 행차는 총 13차례에 걸쳐 행해졌음
  - 을묘년(乙卯年)인 1795년(정조 19) 2월의 화성 원행, 즉 을묘년(乙卯年) 원행(園幸)은 정조가 치세(治世)의 안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생부인 사도세자를 정치적으로 신원시킨 왕실 의례였음
- 유교 국가인 조선왕조에서 국왕이 왕릉에 행차하는 것 자체가 국왕의 효심을 드러내는 행위임
- 또한, 행차 과정에서 백성에게 상언과 격쟁의 기회를 주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구폐를 혁파하고자 하였음<sup>2)</sup>
  - 정조는 행차를 통해 자신이 이룩해 온 업적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친위 세력과 백성들의 충성심을 결집시키고자 함

1) 사도세자의 탄신일이 1월이라는 점과 농사철을 피하려는 의도에 따라 주로 1월과 2월에 행차가 이루어짐

2) 총 3,355건의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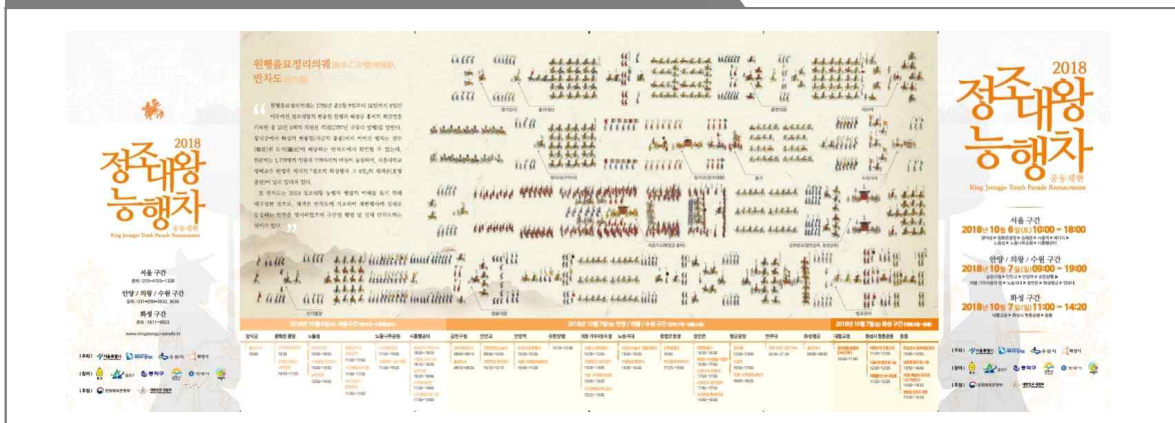
■ 을묘년 원행3)의 개요

- (목적)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기념<sup>4)</sup> 및 화성 축성<sup>5)</sup> 시찰
- (일시 및 기간) 정조 19년(1795년) 음력 윤2월 9일~16일(8일간)
- (행차경로) 창덕궁 - 승례문 - 노량 배다리 - 노량행궁 - 시흥행궁 - 사근참행궁 - 화성행궁
- (행차규모) 행렬 인원은 1,295명, 동원된 말은 516필이었으며<sup>6)</sup>, 행렬 너비 약 10~30m, 길이 약 1~1.5km였음

■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 정조가 혜경궁 홍씨와 현릉원(응릉)에 행차할 때의 배경과 경위, 절차를 기록하기 위해 임시기구인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하고, 김홍도의 지휘 아래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편찬함
  - 이 책은 8책 635장 1,270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씨는 금속활자인 ‘정리자’를, 그림은 목판화를 사용하여 반차도, 배다리 건설, 회갑연, 문무과별시 등 8일간의 행차 과정을 수록
- 『원행을묘정리의궤』는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토대로 원형 복원한 것임

[그림 2-1] 정조대왕능행차 홍보물의 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자료 : 정조대왕능행차 홈페이지(www.kingjeongjo-parad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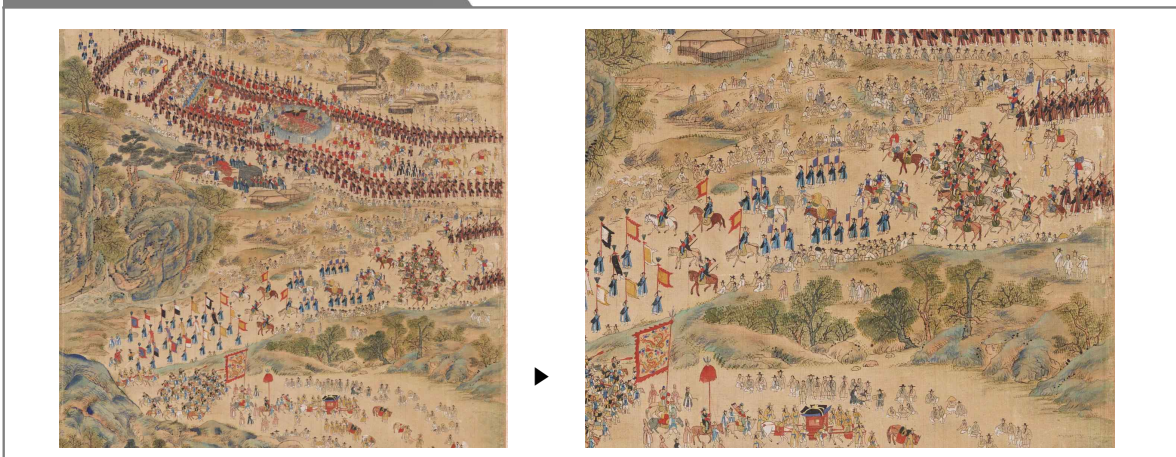
3) 1795년(정조 19)의 정조의 현릉원 방문은 조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능행차였음  
 4) 정조가 혜경궁 홍씨와 동행한 행행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발현으로 해석됨  
 5) 화성 축성 기간은 1794년~1796년임  
 6) 한영우(1998)는 반차도에서 어가를 따라간 인원은 1,779명, 의궤 기록상 어가를 따라간 장관, 장교, 군병의 수는 1,855명으로 원행에 동원된 실제 인원은 약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언급함



### ■ 을묘년 원행의 배경과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성

- 정조는 즉위 초부터 궁궐에서 암살 위협을 겪을 정도로 사왕(嗣王)의 지위가 불안정하였음
  -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 경희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한 점도 사왕의 정통성을 표출하려는 시도였으며, 능행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이왕무, 2017)
- 을묘년 원행은 정조 재위기 어떤 행행보다도 정치적 의미가 짙은 행차임
  - 정조의 행행은 다른 선대왕의 능묘(陵廟)에도 자주 거행되었으나 그가 사도세자의 혈통을 잇는 사왕이라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화성 원행이 대표적이었음
- 국왕이 중심이 되던 의례적 행사에서 백성들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국가 이벤트로까지 변모
  -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국왕의 행차 주변에 모여서 귀경하는 국왕을 맞이하는 모습은 조선 후기 정조의 화성 원행을 비롯하여 국왕들의 능행에서 자주 등장하던 일반적인 현상<sup>7)</sup>
- 정조라는 모범 군주와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민인(觀光民人)의 잔치, 소통의 공간이 바로 정조대왕능행차에 담겨진 역사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sup>8)</sup>의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를 살펴보면 국왕의 행차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며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음

[그림 2-2] 화성원행도의 환어행렬도



자료 : 이왕무(2020).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성격』.

7) 동시대 청나라 황제들의 행차나, 일본의 에도 바쿠후 정권의 쇼군[將軍]이나 다이묘[大名] 행렬과 같이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와 비교한다면 자유로운 분위기였음

8) 을묘년 원행의 주요행사 장면을 그린 8첩 병풍임

## ■ 을묘년 원행 일자별 정조의 주요 활동

### ■ 첫째 날(윤 2.9) 출궁

- 1795년 윤2월 9일 아침 묘정3각(卯正三刻, 6시 45분경)에 창덕궁 출발함
- 왕실 가족은 어머니와 두 누이인 청연군주, 청선군주 대동함
- 정조는 가마를 타지 않고 혜경궁의 가마 뒤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쉴 때마다 혜경궁께 미음을 올리며 문안을 드림
- 시흥행궁 도착 후 어머니 혜경궁에게 저녁 수라상 올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음식 하사한 후 첫날 일정 마무리함

### ■ 둘째 날(윤 2.10)

- 정조는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는 사근참행궁을 향해 출발함
- 장안문을 도착하기 전 군주로서 위풍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군복을 벗고 투구와 황금갑옷을 갈아입음
- 화성행궁 봉수당(奉壽堂)에 도착한 뒤 혜경궁을 봉수당 왼편에 있는 장락당(長樂堂)으로 모심

### ■ 셋째 날(윤 2.11)

- 아침에 화성향교 대성전을 참배함
- 행궁으로 돌아와 문무과 별시 시행함
- 화성부 및 인근지역인 광주, 과천, 시흥 지역 선비들과 무사들을 등용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배려임

### ■ 4일차(윤 2.12)

- 혜경궁을 모시고 용릉에 전배함
- 오후 팔달산 정상 서장대에 친림하여 화성을 방어하는 군사 훈련을 주간과 야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함

### ■ 5일차(윤 2.13)

- 봉수당에서 혜경궁의 회갑잔치 거행하면서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축원함

- 6일차(윤 2.14)
  - 신흥루에서 백성들에게 쌀과 죽을 나누어 줌
  - 낙남헌(洛南軒)에서 70세 이상 관리, 80세 이상 백성들을 불러 양로연(養老宴)을 개최하고, 이들에게 지팡이와 비단으로 만든 수건 나누어 줌
- 7일차(윤 2.15)
  - 지금의 지지대고개인 미륵고개에 이르러, 현릉원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고개 위 지지대(遲遲臺)라는 세 글자를 넣어 표석을 세우라고 함
- 8일차(윤 2.16)
  - 시흥행궁을 떠나 노량 용양봉저정 도착함
  - 백성들을 만나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환곡을 탕감함
- 능행차 완료 5일 후
  - 행차를 수행한 신하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 잔치를 열고 상을 내림
  - 정리소, 장용영, 용호영, 훈련도감 등 장교와 군병들에게 위로금 지급함

〈표 2-1〉 을묘년 원행 일정

구분	주요 일정	이동경로
첫째날 (윤2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궁</li> <li>• 노량 배다리 도강</li> <li>• 노량행궁(용양봉저정) 점심</li> <li>• 시흥행궁 숙박</li> </ul>	창덕궁 돈화문 - 파자전 돌다리 - 통운 돌다리 - 종루 앞길 - 대광통 돌다리 - 소광통 돌다리 - 동현 병문 앞길 - 송현 - 수각 돌다리 - 송례문 - 청파교 - 만천주교 - 노량 배다리 - 용양봉저정 - 만안현 - 번대방평 - 문성동 - 시흥행궁
둘째날 (윤2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천평 휴식</li> <li>• 사근참행궁 점심</li> <li>• 진목정 휴식</li> <li>• 화성행궁 도착</li> </ul>	시흥행궁 - 대박산 - 염불교 - 만안교 - 안양참 - 장산우 - 군포천교 - 서원천교 - 청천평 - 서면천교 - 원동천 - 사근평 - 사근참 - 사근참행궁 - 지지대고개 - 괴목정다리 - 노송지대 - 여의다리 - 진목정 - 만석거 - 관길야 - 장안문 - 화성행궁
셋째날 (윤2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 향교 전배</li> <li>• 낙남헌 문무과 별시 · 방방의</li> <li>• 봉수당 진찬습의</li> </ul>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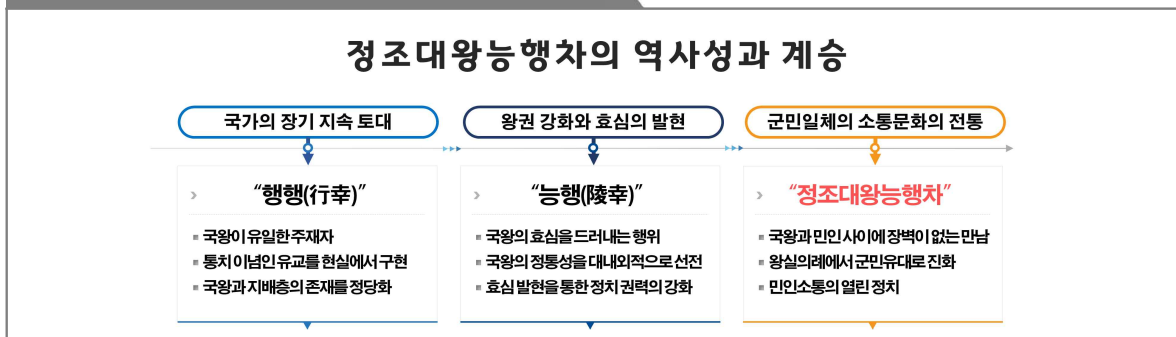
구분	주요 일정	이동경로
넷째날 (윤2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릉원 전배</li> <li>• 서장대 성조 및 야조</li> </ul>	
다섯째날 (윤2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수당 진찬연</li> </ul>	
여섯째날 (윤2월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평루 사미</li> <li>• 낙남헌 양로연</li> <li>• 방화수류정 시찰</li> <li>• 득중정 활쏘기</li> </ul>	
일곱째날 (윤2월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행궁 출발</li> <li>• 사근평행궁 점심</li> <li>• 시흥행궁 숙박</li> </ul>	화성행궁 - 진목정 - 미륵현(지지대고개) - 사근평행궁 - 안양교 - 시흥행궁
여덟째날 (윤2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흥행궁 하교</li> <li>• 문성동 및 반대방평 휴식</li> <li>• 노량행궁 점심</li> <li>• 창덕궁 귀궁</li> </ul>	시흥행궁 - 문성동 - 반대방평 - 만안현 - 노량행궁 - 한강 배다리 - 창덕궁

자료 : 최지연(2015).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 ■ 군민일체(君民一體)로서의 정조대왕능행차

- 정조대왕능행차는 선대 국왕과 왕비 능침 제례를 지내기 위해 가는 행차로서의 의미에서 군민 일체를 실현하는 국가적 축제로 변화
  - 국왕과 군민사이에 신체적-물리적 장벽이 없는 만남
  - 국왕이 민인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의사 표현을 허용
  - 민인들이 국왕에게 소원을 격쟁(擊錚)으로 직소(直訴)
  - 왕실의례의 정치적 상징성 과시에서 군민유대로 진화
  - 군민소통의 열린정치의 장(場)인 능행차

[그림 2-3]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성과 계승



## 2) 행차 관련 의식과 행사

### ■ 한양 도성

- 출궁 전 창경궁 내 존호 의식 : 자전(慈殿: 정순왕후)와 자궁(慈宮: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화성 행차가 있기 한 달 보름 전의 행사임
- 창덕궁 앞에서 능행차 안전과 무사 복귀를 기원하는 출궁(出宮) 의식 : 출궁에 앞서 창경궁의 영춘헌에서 주의 사항을 환기시킨 후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대열을 확인한 후 행차를 시작하는 행사임
- 노들섬에서 상언(上言)·격쟁(擊鐃) 행사 : 상언과 격쟁은 백성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제도로 정조의 애민 정신을 드러내고 백성이 참여하는 행사임
- 승례문 출성 : 승례문에서 대열을 정비한 후, 한강 도강에 앞서 의장의 역할을 분담함

### ■ 안양·의왕

- 만안교 완공 유공자 포상 : 정조가 화성 행차 때 건너야 했던 안양천 다리를 나무로 만들었다가 철거해야 해서 백성들의 불편이 컸는데 이 폐단을 혁파하고 백성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다리로 만들 → 공사를 감독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내림
- 사근참 행궁에서 점심 수라 : 사근참 행궁은 수원 화성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쉬어가기 위해서 자주 들렀으며, 을묘년 원행 때에는 혜경궁을 모시고 점심 수라를 함께 했던 곳임

### ■ 수원

- 지지대(遲遲臺) 고사와 장안문 입성 의식 : 지지대는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애절한 마음을 상징하는 곳임
- 향교 문묘 전배 행사 : 수원 향교의 문묘에서 알성례를 진행하는 행사임
- 문무과 별시(別試) 행사 : 화성 행궁의 우화관과 낙남헌에서 화성부와 인근의 광주·과천·시흥 유생과 무사들을 대상으로 별시를 실시한 행사임
- 화성 야간 군사 훈련 의식(夜操式) : 화성 성곽에서 진행된 야간 군사 훈련임
- 봉수당(奉壽堂) 진찬(進饌) : 혜경궁 홍씨 회갑연 진찬 행사임

- 사미(賜米) 행사 : 화성부에 거주하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굶주린 백성들을 대상으로 쌀을 나누어 주고 죽을 만들어 먹임
- 양로연 행사 : 조정의 노인 관료와 화성의 노인들을 공경하는 뜻으로 베푼 연회임
- 득중정의 활쏘기와 낙남헌 앞 매화포 시연 : 무예를 중시하고 북벌 정신을 간직하였던 정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임

#### ■ 화성

- 현릉원 전배 의식 : 혜경궁과 정조의 현릉원 참배와 그들 일생의 아픔을 드러냄

### 3) 전승과 지역발전

#### ■ 정조대왕능행차의 전승 양상

- (정조 이후) 조선시대 이후 순조 때 6차례, 헌종 1차례, 철종 3차례, 고종 2차례, 순종 1차례 등 조선 이후 대한제국 때까지 꾸준히 이어짐
- (일제강점기) 순종은 이왕(李王)의 자격으로 1차례, 순종 서거 이후 이왕이 된 영친왕이 1차례 방문하여 근대식으로 바뀐 예식으로 간략하게 치름
- (60~70년대) 1964년부터 '수원시민의 날 행사'로 개최된 '화흥문화제'에서 능행차 행사 일부가 재현되었는데, 현재 정조대왕능행차 재현행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음
  - 해방 이후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확보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
- (70~80년대) 능행 재현이 가장행렬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구체적인 고증을 거치면서 골격을 갖추기 시작함
  - 1975년 화산능행차 재현 : 당시 자문위원단<sup>9)</sup>은 수원 시내 고등학생 총 240명을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며, 수성고 교사 이흥구<sup>10)</sup>에게 행사내용 결정 및 연습, 실행을 위촉함
  - 197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되었으며, 1989년 제70회 전국체전에서의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재현이 언론에 보도됨

9) 수원 시내 8개 고교 교장단으로 구성되었음

10) 이흥구 선생은 수원 북중학교 교사 재직 시기 연극반에서 고전 연극을 지도 공연한 인연으로 수원 수성고 교사 근무 시 화흥문화제 기획에 참여하여 능행차 복원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함

■ 1975년 화산능행차 재현의 배경 ■

이홍구의 기록과 구술에 의하면, 사극 극작가로 이름을 떨치던 이서구에게 화흥문화제와 능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20세기 초 인쇄 간행된 반차도 병풍과 7차에 걸친 능행로 답사기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고증 자료를 얻어서 재현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수원시장 이재덕이 화성건설과 능행차의 핵심가치를 “효”라고 정의하면서 그 정신을 현재화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효라는 개념, 즉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문화 콘텐츠로 해석하여, 그 의미의 현대적 계승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능행 재현행사는 ‘효자효부’를 선두에 세우고 수원역까지 행진했다고 한다.

자료 : 이종주(2020). 『화성 능행 재현행사의 무형문화적 가치 시론: 정조 능행과 재현행사의 문화 상징적 의미』에서 발췌함.

- (1996년~2015년) 1996년 화성 행궁 복원사업과 1997년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화흥문화제’가 ‘화성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학생중심에서 시민참여 행사로 발전
  - 『화성성역의궤』 등 능행차 관련 문헌을 발굴하면서 원형복원의 중대한 전환기를 마련
  - 1996년: 수원 노송지대에서 팔달문까지(8km) 능행차 재현
- (2016년~현재) 2016년 서울시와 수원시 공동개최로 창덕궁에서 수원화성까지 재현하고, 2017년에는 화성시가 참여하여 화성 용건릉까지 59.2km 을묘원행 전체구간을 완벽 재현함
  - 정조대왕능행차 행렬이 통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축제화 시대가 전개
- 다만, 2019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기도 구간은 취소되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4월로 연기됨

[그림 2-4]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개최현황

<b>2016년 공동재현</b> 서울시·수원시구간공동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6. 10. 8(토) ~ 10. 9(일)</li> <li>▪ 행차경로 : 창덕궁~시흥행궁터~화성행궁~연무대(총47.6km)</li> <li>▪ 행렬규모 : 총 인원 3,069명, 말 408필</li> <li>▪ 주최 : 서울시, 수원시</li> </ul>	
<b>2017년 공동재현</b> 222년만에 전구간복원(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7. 9. 23(토) ~ 9. 24(일)</li> <li>▪ 행차경로 : 창덕궁~시흥행궁터~화성행궁~용릉(총59.2km)</li> <li>▪ 행렬규모 : 총 인원 4,580명, 말 690필</li> <li>▪ 주최 :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li> </ul>	
<b>2018년 공동재현</b> 2019년은경기도구간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8. 10. 6(토) ~ 10. 7(일)</li> <li>▪ 행차경로 : 창덕궁출궁의식~강남구간~화성행궁~용릉(총48.85km)</li> <li>▪ 행렬규모 : 총 인원 4,234명, 말 644필</li> <li>▪ 주최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li> </ul>	

## ■ 정조대왕능행차와 지역발전

- 정조대왕 화성 행차 경로는 수원 화성이 조성되고, 수원 읍치가 지금의 수원 화성으로 옮겨오에 따라 한양과 삼남지방을 잇는 주요 도로로 활용됨
- 전통적인 국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특별히 ‘지역명+행행’으로 명칭을 붙임
  - ‘행행(行幸)’이란 조선 시대 국왕의 행차를 일컫는 말로 백성들의 삶과 고충을 헤아려 주는 왕의 행차 덕분에 모두가 행복했기에 ‘행복한 행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행행은 국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여 도성의 중심부를 지나 목적지에 이르는 형식이므로 오늘날의 퍼레이드와 유사한 양상을 지니고 있음
- 정조대왕능행차가 서울 성곽 밖으로 확대됨으로써 한강 이남 지역으로 도읍의 영역이 확장되고 경기 남부가 현저히 발전하는 계기가 됨
- 경기 동부(동구릉), 경기 서북부(서오릉), 경기 남동부(세종·효종릉)에 이어 경기 남서 지역이 왕실과 직접 연결되면서 한강 이남 지역으로 수도권이 확대됨
- 능행차 여행을 통한 지역 발전 및 화성건설을 통해 정조가 추진한 개혁의 마침표를 찍음

## ■ 정조대왕능행차와 시흥대로 건설

- 정조 즉위 초에는 창덕궁에서 출발하여 종루, 승례문, 노량진 배다리, 노량행궁까지는 동일했으나, 금불고개, 사당사거리, 남태령, 과천행궁, 찬우물고개, 인덕원사거리를 거쳐 가는 길을 이용함
- 1795년 을묘년 능행길은 험한 남태령을 피하고 평탄한 시흥길을 택함
  - 노량행궁에서 시흥행궁, 대박산, 만안교, 안양행궁을 거쳐 군포로 가는 길을 이용함
  - 이 길을 만들기 위해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가 책임을 맡았고, 평안도의 남당성(南塘城) 공사에 쓰고 남은 돈 1만 3천 냥을 투자하여 완성함
- 정조는 수원 화성까지 능행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새롭게 길을 닦았는데 이 길이 시흥대로(국도 1호선)의 시초임
  - 순조 때에도 계속 확장되어 마침내 전국적으로 10대로(大路)에 들어가는 간선도로가 됨



## 2.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연구동향 분석

### 1) 역사적 성격

#### ■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고증 및 해설

-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고증과 해설은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기초연구에 해당함
  - 『반차도(班次圖)』,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을 대상으로 정조대왕능행차 출발 전 준비과정, 8일간의 세부 의식 일정, 그리고 도착 후의 행사 등에 대해 고증이나 해설을 하였음(김문식, 2010; 박영목, 2010; 수원화성박물관, 2015; 수원화성박물관, 2016; 최홍규, 2001; 한영우, 1998; 황은주, 2013)
  - 최동균(2016)은 정조대왕능행차와 관련이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 『화성행반차도』의 편찬 과정, 내용 구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 정조대왕능행차의 배경 및 의미 파악

- 정조대왕능행차의 흐름이나 절차에 따라 각 요소들에 대한 배경이나 의미 파악이 이루어짐
  - 김문식(1997)은 능행일지(陵行日誌)를 분석한 결과, 능행차의 정치적 의의는 왕권(王權)의 과시와 강화, 사회적 의의는 사(士)·민(民)의 통합, 그리고 경제적 의의는 수도권 성장의 보호와 촉진이라고 설명함
  - 김준혁(2020)은 정조 개인적 관점에서의 능행차 및 봉수당 진찬 의미를 밝힘
  - 이상각(2007)은 능행차를 인간으로서의 '이산'과 왕으로서의 '정조'의 삶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함
  - 이왕무(2017)는 시흥행궁이 융·건릉을 이용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에서 화성행궁과 건립 목적이 동일하지만, 정조가 도성(都城)에서 화성(華城)으로 연결되는 시흥 행행로를 만들면서 조성한 점이 다르다고 설명함
  - 임혜련(2018)은 화성 행행(行幸)이 의례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봉수당 진찬의 특징은 궁궐을 벗어나 화성 행궁에서 시행된 것, 혜경궁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별례(別禮)가 마련된 것이라고 함
  - 정해득(2016)은 일련의 단행본과 학술논문에서 화성 성역과 능행차의 관계, 나아가 정조의

관왕묘 방문 및 봉수당 진찬의 참석 대상과 공간 구성, 정재공연의 의도를 밝힘

- 최성환(2016)은 정조가 장래에 상왕(上王)이 거주할 도시로 기획된 화성 신도시 건설의 공정(工程)을 직접 지휘하고, 수원 화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단에 대하여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것은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양상이라고 함

## ■ 화성(華城) 건설과 능행차의 관계

- 정조대왕능행차가 여타의 능행차와 차별화되는 점은 선조(先祖)에 대한 예(禮)를 갖추기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인 화성건설로 이어졌기 때문임
- 화성 건설과 원행(園幸)의 관계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짐
  - 김준혁은 정조실록(正祖實錄),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의 사료를 근거로 거시적 관점에서 화성 성역과 능행차의 관계를 파악함<sup>11)</sup>
  - 이육(2019)은 지역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조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원행(園幸)을 실시했다고 함

## ■ 정조대왕능행차의 경로(徑路) 분석과 현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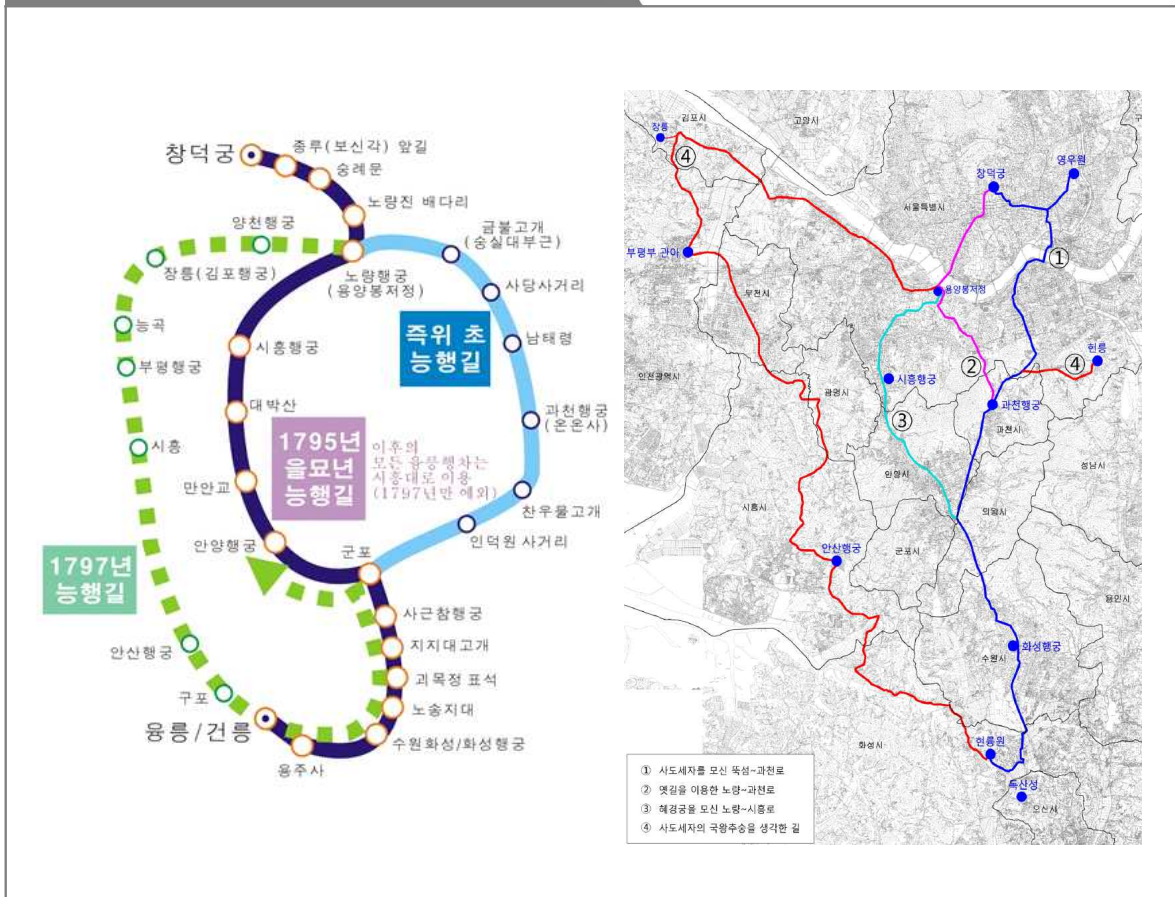
- 정조대왕능행차 당시 이용되었던 지역별 노선이 그 자체로 분석되기도 하고, 특정 주제 및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함
- 리제재(1999)는 현릉원 행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뒤 현릉원 행차에 활용된 필로(蹕路)를 구필로(작은행길)와 새필로로 나누어 분석함
- 윤진영(2005)은 정조가 현릉원으로 행차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시흥길을 중심으로 그 원행로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분석한 뒤 시흥길의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함
- 정해득(2013)은 13차에 걸친 정조의 현릉원 원행에 이용된 길을 성격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 뒤 각 행차 때 이루어졌던 정조의 언행과 지시를 통해 그가 지향하였던 원행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함

11)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 김준혁(2006).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을까?』.
- 김준혁(2008a).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 김준혁(2017).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

- 조병로(2005)는 원행에 따른 어가호위(御駕護衛) 체제나 군병(軍兵)의 편성, 능행차에 따른 노선의 선정, 도로의 수치나 주교(舟橋) 설치, 영화역(迎華驛) 및 5발참(撥站)의 신설에 따른 역참(驛站)에서의 역마(驛) 조달 및 음식, 숙박 제공 등을 중심으로 원행(園幸)의 교통사적 의의를 규명함

[그림 2-5] 정조의 화성 행차 경로 및 수원 원행로



자료 : 문화전략연구소(2008), 정해득(2013)에서 발췌함.

## 2) 행차 관련 의식과 문화

### ■ 정조대왕능행차 소재 복식(服飾)의 의미 파악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그림 속 여러 인물들의 복식(服飾)을 대상으로 분석함
  - 김인숙(2020)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연설」, 「의주(儀註)」에 기록된 복식인 면복(冕服),

용복(戎服), 군복(軍服), 참포(參袍), 갑주(甲冑) 등을 행차 일자별로 고증함

- 백영자(1997)는 150여 점의 복식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어가행렬에 등장하는 여러 기차와 의장물 및 의례복을 해설함
- 이해영·심하진(2002)은 반차도 소재 의장, 의장물, 고취악기, 그리고 의장병의 직분(職分)에 따른 복식을 분석함

## ■ 정조대왕능행차 소재 전통 연희의 성격 규명

- 정조대왕능행차 때 연행되었던 음악과 춤은 ‘을묘원행’ 당시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봉수당 진찬이나 양로연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나눌 수 있음
  - 강민영(2004)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과 능행도 병풍에 그려진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를 대상으로, 진찬과 양로연의 절차와 음악을 분석한 결과, 봉수당 진찬에 쓰인 음악 관련 요소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낙남헌 양로연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함
  - 송혜진은 『원행을묘정리의궤』, 『정조실록』, 『홍재전서(弘齋全書)』 등의 기록물과 「화성능행도병(華城陵幸圖屏)」 소재 봉수당 진찬의 의례와 악무를 분석한 결과, 장악원 악공 대신에 군영악대를 중용하거나, 정재 상연을 위해 선상기를 불러올리는 수고를 줄인 것은 봉수당 진찬의 특징이며, 어느 내연에서보다 임금의 역할과 비중이 높은 것이 주목할만하다고 함<sup>12)</sup>
  - 임미선 등(2000)은 정조대의 전례와 음악, 악서, 병서, 의서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례와 음악 부분에서 ‘1795년 화성에서의 진찬과 양로연’을 다룸
  - 허용호(2003)는 봉수당 진찬에 등장하는 의녀와 침선비, 남성 악기 연주자의 궁중 내연(內宴) 참여, 낙성연에서의 보계 구조, 사자춤, 채봉의 존재는 전통 연희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함

##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그림의 구조와 의미 파악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그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해설과 분석으로 구분됨

12)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 송혜진(2009).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 송혜진(2010). 『해경궁 흥씨의 회갑연·'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공연사적 의의』.

- 김리완(2013)은 「화성행반차도(華城行班次圖)」를 정보 디자인 관점으로 살펴본 결과, 반차도에는 역할에 따라서 인원이 구분되는데, 행렬 소재 깃발과 인물의 배치를 통해서 단순히 행차를 이렇게 했다는 정보 및 행차 상황 전달과 함께, 정보 전달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함
- 김보경(2019)은 「화성능행도」의 병풍 중 봉수당진찬도 소재 궁중상화에는 왕실의 강건함과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함
- 이미연(2014)은 「화성원행정리의궤 반차도(園幸乙卯整理儀軌 班次圖)」를 이전의 반차도들과 비교한 결과, 시점의 변화 및 해학적 표현 등이 포착되고, 독자적인 구성과 회화적 특징이 발견된다고 함
- 유재빈(2018)은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정조대 유일하게 어정서(御定書)로 편찬된 의궤로, 기존 의궤의 제작 관행을 따르지 않았고, 『정리의궤』는 관리자보다는 독자의 시각으로, 재수행보다는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편집되었다고 함
- 조영주(2005)는 「화성능행도」에 백성들이 임금과 함께 있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與民樂)’는 생각이 강했던 정조의 위민정치(爲民政治) 사상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당시 풍속화의 유행에 기인한다고 함
- 최여진(2002)은 「화성능행도」 전반부의 네 장면과 후반부의 네 장면이 화면 구성면에서 대비된다며, 낙남헌과 봉수당같이 행궁 내에서 거행된 행사를 담은 전반부의 장면에는 전형적인 궁중기록화의 양식을 고수하였지만, 궁 밖을 배경으로 한 후반부에서는 당시 유행하는 서양화법을 보여준다고 함

## ■ 을묘원행 당시 음식 관련 연구

- 음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13차례의 능행차 중 가장 성대했던 ‘을묘원행’ 당시 상차림 및 음식 구성, 조리기구 등이 논의됨<sup>13)</sup>

13) 관련 연구는 아래와 같음

- 김상보, 이성우, 한복진(1989).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조리면에서 본 죽상, 미음상 및 현릉원에서의 상차림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제4집 제4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이성우, 한복진(1989).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나는 음식명, 식기명, 조리기구명」,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제4집 제4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3) 정조대왕능행차의 전승·활용방안

#### ■ 정조대왕능행차의 교육적 활용

- 정조대왕능행차의 교육적 활용 관련 연구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단행본의 경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정조의 화성 행차 시행 이유 및 의의, 전체 일정 소개, 화성능행도 등의 그림 해설이 주된 내용임
- 일부 연구에서는 역사와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송예지(2014)는 '8일 간의 화성행차'를 주제로 역사적 장소 탐방학습 활동지를 구안하면서, 현재와 다른 과거의 '낯설음'을 이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기,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알 수 있는 행사들로 내용 구성하기, 인물과 대화를 통해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고 지식을 구성하기, 활동지에서 등장하는 교사와 정조의 설명은 능행차와 관련된 사료와 전문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함
  - 염은혜(2017)는 초등학교 6학년 음악과 수업에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능행차 소재 음악과 관련된 사회과, 체육과의 융합 수업 방안을 개발함

#### ■ 정조대왕능행차 활용방안 모색

- 정조대왕능행차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연구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논의와 문헌, 음식, 경로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음
  - 김명희(2009)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마케팅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원행을묘정리의궤』 제4권 찬품(饌品) 소재 전통음식의 콘텐츠개발 및 문화 연계한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함
  - 김준혁(2016)은 화성 내 거주민들의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과 정조시대 문헌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함
  - 서광열(2018)은 수원, 서울, 화성 등 지자체 공동 재현 때 해당 구간별로 을묘년 원행의 공식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내용 중 「반차도」, 「화성행행도」 등을 바탕으로 고증해야 하고, 능행차의 주요 거점마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

- 심승구(2009)는 능행차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능행차 관련 유적, 유물들을 수집·복원·활용하기, 수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 발굴하기, 화성행차에 사용된 궁중음식의 개발과 이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기, 수원 대표상품 만들기, 정조가 거닐던 공간을 찾아내 스토리텔링하기를 제안함
- 최지연 등(2015)은 수원, 서울, 안양, 화성, 군포 등의 지자체에서 이미 했거나, 진행 중인 능행차의 환경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한 뒤 2016년 공동 재현을 위해 행차 경로, 지역별 축제 연계, 공동조직위원회 구성 및 홍보 마케팅 방안, 증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안함
- 조용준(2015)은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을 가치재(價値財)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홍보가치, 유산가치,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원시 단독 재현은 비용편익비율(B/C ratio) 값이 가장 높고, 연관 지자체들의 공동 추진은 그 값이 가장 낮다고 함
- 함한희(2020a)는 정조대왕능행차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가치를 조사한 결과, 능행차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가치가 있다고 함

#### ■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방안 마련

- 김준혁(2008b)은 화성 능행차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에 맞춰 복식과 음식, 행렬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당시대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되, 국제 문화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기, 8일간의 화성행차를 경기도 및 국가무형문화재 등록하기, 유네스코 무형유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직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잠정목록을 변경하기 등을 제안함

#### ■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연구 세미나

2020년 11월 화성시와 경기연구원이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검토하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성격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제고 방안 등에 관한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료 : 화성에서 온 TV(<http://www.ihbs.go.kr/>)에서 발췌함.



〈표 2-2〉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선행연구

구분	저자	제목	주요내용	
역사적배경	고종 및 해설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대왕능행차와 관련된 출발 전 준비, 8일간의 세부 의식 일정, 그리고 도착 후의 행사 등에 대한 고증이나 해설을 반차도, 원행음묘 정리의궤 등의 사료를 대상으로 수행</li> </ul>
		황은주 (2013)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화성 행차	
		수원화성 박물관 (2016)	정조대왕의 수원행차도	
		최동균 (2016)	정조반차도: 8일간의 화성 행차	
	배경 및 의미파악	김문식 (1997)	18세기 정조 능행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행일지를 분석하여 능행차의 정치적 의의는 왕권의 과시와 강화, 사회적 의의는 사(士)·민(民)의 통합, 경제적 의의는 수도권 성장의 보호와 촉진임을 밝힘</li> </ul>
		이상각 (2007)	이산 정조대왕 - 조선의 이노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능행차를 인간으로서의 '이산'과 왕으로서의 '정조'의 삶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li> </ul>
		정해득 (2009; 2015; 2016)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련의 단행본과 학술논문에서 화성 성역과 능행차의 관계, 정조의 관왕묘 방문 및 봉수당 진찬의 참석 대상과 공간 구성, 정재공연의 의도를 밝힘</li> </ul>
			정조의 영우원 · 현릉원 원행에 대한 고찰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최성환 (2016)	정조의 수원화성 행차 시 활동과 그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가 장래에 상왕이 거주할 도시로 기획된 화성 신도시 건설의 공정을 지휘하고, 수원 화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단에 대하여 제도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것은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양상임</li> </ul>
		이왕무 (2017)	정조대 始興 園幸路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흥행궁이 웅·건릉을 이용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에서 화성행궁과 건립 목적이 동일하나, 정조가 도성에서 화성으로 연결되는 시흥 행행로를 만들면서 조성한 점을 설명</li> </ul>
		임혜련 (2018)	1795년(정조19) 혜경궁의 화성 행차와 봉수당 진찬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성 행행이 의례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봉수당 진찬의 특징은 궁궐을 벗어나 화성 행궁에서 시행된 것, 혜경궁의 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별례가 마련된 것임을 밝힘</li> </ul>
	김준혁 (2020)	리더라면 정조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 개인적 관점에서의 능행차 및 봉수당 진찬 의미를 밝힘</li> </ul>	
	화성 건설과 능행차의 관계	김준혁 (2006; 2008a; 2017)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실록』, 『화성성역의궤』, 『원행음묘정리의궤』 등의 사료를 근거로 거시적 관점에서 화성 성역과 능행차의 관계를 파악</li> </ul>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				
이욱 (2019)	정조는 왜 화성을 축조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조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원행을 실시함을 밝힘</li> </ul>		



구분		저자	제목	주요내용
역사적배경	정조대왕 능행차의 경로 분석과 현대적 의의	리제재 (1999)	정조의 현릉원 행차와 그 필로(蹕路)	• 현릉원 행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뒤 현릉 원 행차에 활용된 필로를 구필로와 새필로로 나누어 분석
		윤진영 (2005)	정조의 현릉원 원행 의의와 역사문화환경으로의 보존방안 : 시흥길에 분포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 정조가 현릉원으로 행차하기 위해 새롭게 조 성한 시흥길을 중심으로 그 원행로에 분포되 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분석한 뒤 시흥길의 보 존 및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
		정해득 (2013)	정조의 수원 園幸路와 그 성격	• 13차에 걸친 정조의 현릉원 원행에 이용된 길 을 성격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 뒤 각 행차 때 이루어졌던 정조의 언행과 지시를 통해 그 가 지향하였던 원행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
		조병로 (2004, 2005)	조선후기 顯隆園 園幸의 御駕護衛와 驛站運營-『園幸乙卯整理 儀軌』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현릉원 원행과 역참	• 원행에 따른 어가호위 체제나 군병의 편성, 능 행차에 따른 노선의 선정, 도로의 수치나 주교 설치, 영화역 및 5발참의 신설에 따른 역참에 서의 역마 조달 및 음식, 숙박 제공 등을 중시 으로 원행의 교통사적 의의를 규명
행차 관련 의식과 문화	정조대왕 능행차 소재 복식의 의미 파악	김인숙 (2020)	을묘년(1795) 화성 원행 시 정조 복식 고증	•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연설」, 「의주」에 기 록된 복식인 면복, 융복, 군복, 참포, 갑주 등 을 행차 일자별로 고증
		백영자 (1997)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 150여 점의 복식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어가 행렬에 등장하는 여러 기치와 의장물 및 의례 복을 해설
		이혜영 심하진 (2002)	어가행렬에 나타난 의장병의 복식에 관한 연구: 정조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 「반차도」 소재 의장, 의장물, 고취악기, 그리 고 의장병의 직분에 따른 복식을 분석
	전통 연희의 성격 규명	강민영 (2004)	奉壽堂 進饌과 洛南軒 養老宴의 音樂의 考察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과 능행도 병풍에 그려진 봉수당진찬도, 낙남현양로연도를 대상 으로 진찬과 양로연의 절차와 음악을 분석한 결과, 봉수당 진찬에 쓰인 음악 관련 요소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낙남현 양로연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
		송혜진 (2009, 2010)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진찬(奉壽堂 進饌)'의 공연사적 의의	• 『원행을묘정리의궤』 및 『정조실록』, 『홍재전 서』, 『화성능행도병』 소재 봉수당 진찬의 의 례와 악무를 분석한 결과, 장악원 악공 대신에 군영악대를 중용하거나 정재 상연을 위해 선 상기를 불러올리는 수고를 줄인 것은 봉수당 진찬의 특징이며 어느 내연에서보다 임금의 역할과 비중이 높은 것이 주목할만하다고 함
		임미선 외 (2000)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 정조대의 전례와 음악, 악서, 병서, 의서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례와 음악 부분에서 「1795년 화성에서의 진찬과 양로연」을 다룸

**〈표 계속〉**

구분	저자	제목	주요내용	
전통 연희의 성격 규명	허용호 (2003)	화성 행궁과 전통 연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수당 진찬에 등장하는 의녀와 침선비, 남성 악기 연주자의 궁중 내연 참여, 낙성연에서의 보계 구조, 사자춤, 채봉의 존재는 전통 연희 사적으로 의의가 있음</li> </ul>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 그림의 구조와 의미 파악	김리완 (2013)	정보 디자인 관점으로 본 『화성행반차도(華城行班次圖)』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행반차도』를 정보 디자인 관점으로 살펴본 결과, 반차도에는 역할에 따라서 인원이 구분되는데, 행렬 소재 깃발과 인물의 배치를 통해서 정보 전달 체계를 발견할 수 있음</li> </ul>
		김보경 (2019)	惠慶宮 洪氏 回甲宴의 宮中裝飾繪畫와 宮中床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능행도」 병풍 중 봉수당진찬도 소재 궁중상화에는 왕실의 강건함과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li> </ul>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음묘정리의궤 반차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원행정리의궤 반차도를 이전의 반차도들과 비교한 결과, 시점의 변화 및 해학적 표현 등이 포착되고 독자적인 구성과 회화적 특징이 발견된다고 함</li> </ul>
		유재빈 (2018)	『園幸乙卯整理儀軌』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행음묘정리의궤』가 정조대 유일하게 어정서로 편찬된 의궤로 기존 의궤의 제작 관행을 따르지 않았고 『정리의궤』는 독자의 시각으로 행사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편집</li> </ul>
		조영주 (2005)	華城陵幸圖와 정조의 대민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능행도」에 백성들이 임금과 함께 있는 광경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정조의 위민정치사상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당시 풍속화의 유행에 기인</li> </ul>
최여진 (2002)	華城陵幸圖에 대한 繪畫性 研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능행도」는 전반부의 네 장면과 후반부의 네 장면이 화면 구성면에서 전반부의 장면에는 전형적인 궁중기록화의 양식을 고수하였지만 궁 밖을 배경으로 한 후반부에서는 당시 유행하는 서양화법을 보여줌</li> </ul>		
전승·활용 방안	정조대왕 능행차의 교육적 활용	송예지 (2014)	역사적 장소 탐방 수업을 위한 학습 활동지 개발 :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일 간의 화성행차'를 주제로 역사적 장소 탐방학습 활동지를 구안하면서 활동지에 등장하는 정조의 설명은 능행차와 관련된 사료와 전문가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함</li> </ul>
		염은혜 (2017)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6학년 음악과 융합수업 연구 : 정조, 8일간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6학년 음악과 수업에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능행차 소재 음악과 관련된 사회과, 체육과의 융합 수업 방안을 개발</li> </ul>
	정조대왕 능행차 활용방안 모색	김명희 (2009)	『원행음묘정리의궤』를 통한 궁중 음식의 현재화와 상품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마케팅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원행음묘정리의궤』 제4권 찬품 소재 전통음식의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연계한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li> </ul>

### 3. '정조대왕능행차' 빅데이터 분석

#### 1) 방문객 데이터 분석

##### ■ 통신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한 축제방문객 유동인구 분석

- LTE 시그널 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분석 솔루션 KT 빅사이트(BigSight)를 이용하여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수원)<sup>14)</sup> 및 정조 효 문화제(화성)의 관광객 유동인구 수와 특성을 분석함
- 특히, KT 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광지 및 축제장에서 관광객이 남긴 흔적을 센싱(sensing)하고, 관광객 통계를 제공하는 트립(TriP, Travel Intelligence Platform) 서비스<sup>15)</sup>를 활용함
- 관광객 유동인구는 기지국에 수집되는 주재인구를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로 분류한 후, 보행인구를 도출하고, 이 중 관광목적으로 움직이는 인구(외지인 기준)를 최종 추출함

##### ■ 2018년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sup>16)</sup>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관광객 현황
  - 2018년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관광객 수는 전체 67,94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내국인 관광객 비중이 99%(67,2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개최년도	개최기간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2018년	10월 6~7일(2일)	67,267	676	67,943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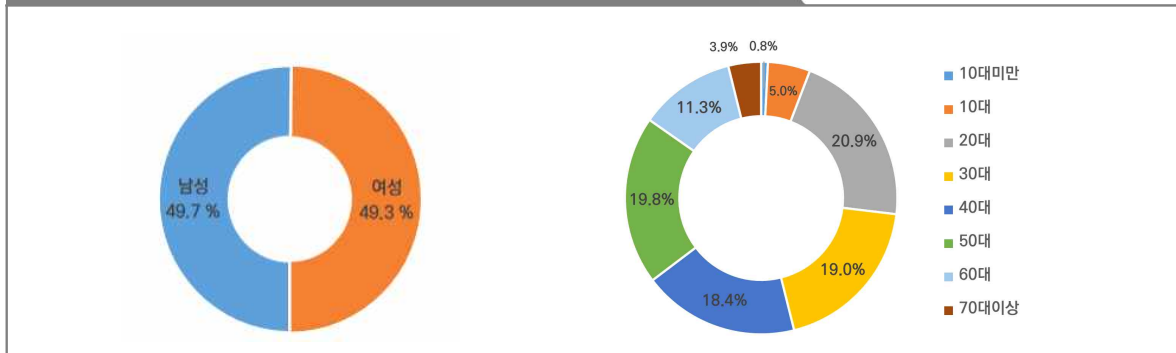
- 내국인 관광객 성별은 남성(49.7%)과 여성(49.3%)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대(20.9%), 50대(19.8%), 30대(19%), 40대(18.4%)의 비중이 높은 편임

14)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수원 구간은 '수원화성문화제' 개최장소임

15) TriP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는 2019년 10월 세계관광기구(UNWTO) 협력회원으로 가입됨

16) 2019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로 공동재현 행사 경기도 구간이 취소되어 2018년 자료만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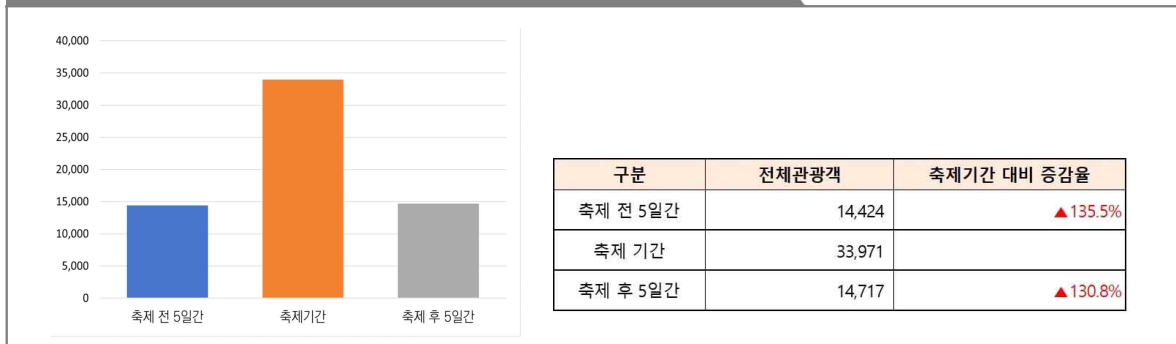
[그림 2-6]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성별 및 연령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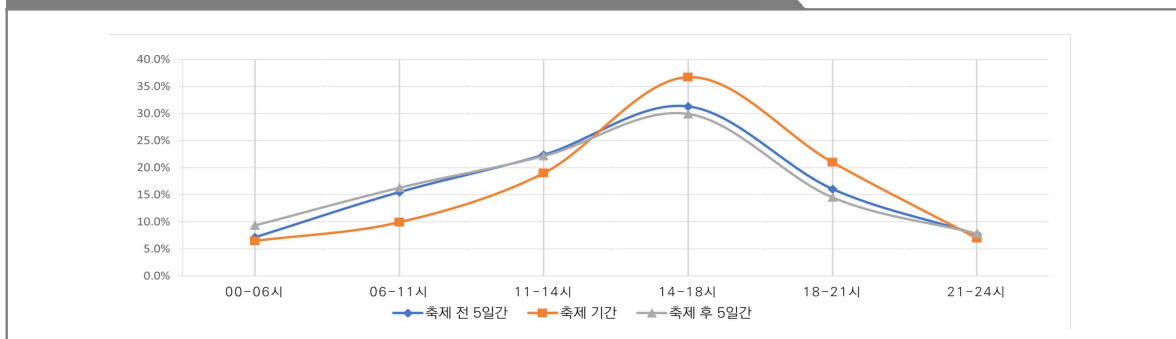
- 2018년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기간에는 관광객 수가 축제 5일 전 평균 대비 135.52%, 축제 5일 후 평균 대비 1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축제 기간에는 축제 전과 후 시점 대비 14-18시, 18-21시에 관광객 수가 높게 나타남

[그림 2-7]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전/후 전체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그림 2-8]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전/후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내국인 관광객의 거주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수원시 장안구가 18.7%(34,906명)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권선구(15.5%), 수원시 영통구(10.2%), 화성시(9.4%) 순으로 나타남
- 내국인 관광객의 24시간 이후 이동지역 비중은 수원시 팔달구가 29.3%(22,477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원시 장안구(8.4%), 권선구(6.9%)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39.4%(369명)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29%), 일본(7%)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권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외국인 관광객의 24시간 이후 이동지역은 수원시 팔달구가 30.2%로 나타나 관내 체류인구로 파악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 다른 광역시로 이동한 비중도 높은 편임

〈표 2-4〉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내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거주지역			이동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9.3%
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5.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4%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9%
4	경기도	화성시	9.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5.0%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0%	경기도	화성시	4.6%
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4%
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9%
8	경기도	오산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5%
1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1.4%
11	기타	기타	31.8%	기타	기타	37.0%
<b>합계</b>			<b>100%</b>	<b>합계</b>		<b>100%</b>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표 2-5〉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외국인 관광객 국적 및 이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거주지역		이동지역			
	국적	비율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1	중국	39.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0.1%	
2	태국	29.0%	서울특별시	은평구	9.8%	
3	일본	7.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	
4	미국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5.7%	
5	홍콩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1%	
6	러시아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5.1%	
7	대만	1.3%	서울특별시	중구	3.9%	
8	말레이시아	1.2%	인천광역시	중구	3.6%	
9	프랑스	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6%	
10	기타	14.4%	기타	기타	27.1%	
<b>합계</b>		<b>100%</b>	<b>합계</b>			<b>100%</b>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2018년 정조 효 문화제 관광객 유동인구 분석

### 정조 효 문화제 관광객 현황

- 2018년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관광객 수는 전체 21,52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내국인 관광객 비중이 99%(21,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정조 효 문화제 전체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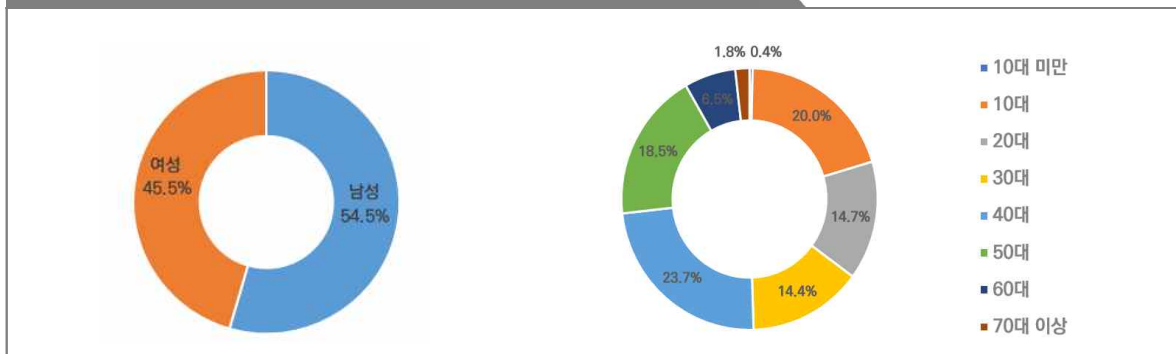
(단위 : 명)

개최년도	개최기간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2018년	10월 6~7일(2일)	21,445	77	21,522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내국인 관광객 성별은 남성(49.7%)과 여성(49.3%)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23.7%), 10대(20%), 50대(18.5%)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와 달리 정조 효문화제는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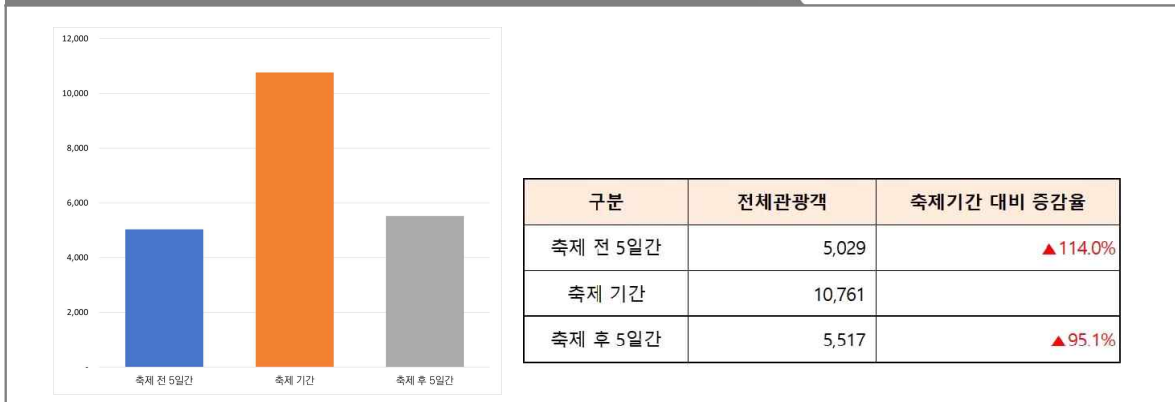
[그림 2-9] 정조 효 문화제 성별 및 연령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2018년 정조 효 문화제 기간에는 관광객 수가 축제 5일 전 평균 대비 114%, 축제 5일 후 평균 대비 9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구간에 비해 축제기간 증가율이 다소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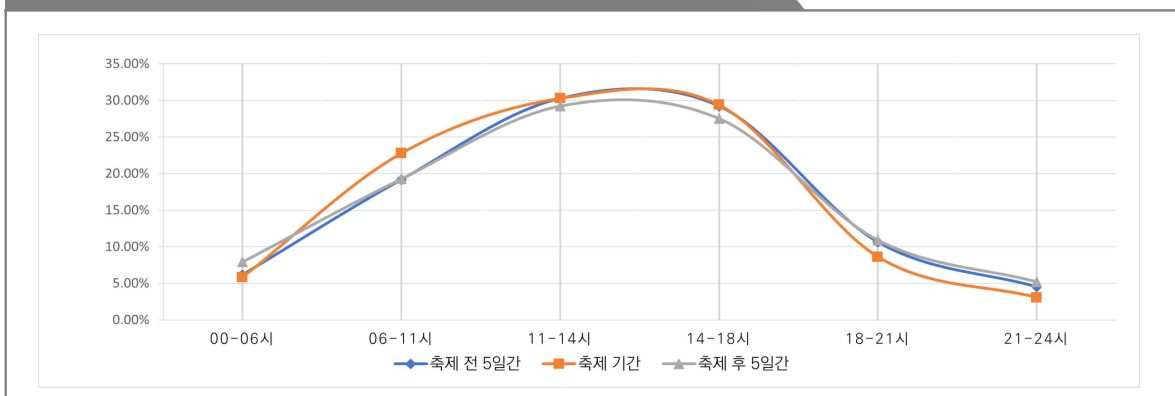
[그림 2-10] 정조 효 문화제 전/후 전체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축제 기간에는 축제 전과 후 시점 대비 6-11시에 관광객 수가 높게 나타남
  - 화성 용·건릉 일대에 정조대왕능행차 행렬이 통과하는 시간대에 관광객 수가 높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됨<sup>17)</sup>

[그림 2-11] 정조 효 문화제 전/후 시간대별 전체 관광객 현황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내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 내국인 관광객의 거주지역 비중을 살펴보면, 수원시 권선구가 12.5%(7,935명)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영통구(6.8%), 오산시(6.7%)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17) 2018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정조 효 문화제 2일차 11시-14시까지 용·건릉 일대에서 진행됨

- 내국인 관광객의 24시간 이후 이동지역 비중은 화성시가 32.5%(8,621명)로 나타나 축제를 방문한 내국인 10명 중 3명 정도가 화성시에서 체류한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30.3%(52명)로 가장 높았으며, 태국(16.2%), 일본(5.7%)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외국인 관광객의 24시간 이후 이동지역은 화성시가 49.4%로 나타나 관내 체류인구로 파악되었으며, 서울, 제주 등 수도권 내 다른 광역시로 이동한 비중도 높은 편임

〈표 2-7〉 정조 효 문화제 내국인 관광객 유입 및 이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거주지역			이동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12.5%	경기도	화성시	32.5%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6.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9%
3	경기도	오산시	6.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4.8%
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8%
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
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9%	경기도	오산시	2.0%
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9%
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6%
10	경기도	군포시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11	기타		51.0%	기타		44.1%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표 2-8〉 정조 효 문화제 외국인 관광객 국적 및 이동현황 (단위 : 명)

구분	거주지역		이동지역		
	국적	비율	광역시도	시군구	비율
1	중국	30.3%	경기도	화성시	49.4%
2	태국	16.2%	서울특별시	종구	7.8%
3	일본	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5%
4	베트남	3.8%	서울특별시	구로구	3.9%
5	홍콩	3.8%	경기도	오산시	3.9%
6	싱가폴	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9%
7	말레이시아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2.6%
8	미국	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6%
9	인도네시아	1.3%	전라북도	김제시	2.6%
10	기타	30.1%	기타		16.9%
	합계		합계		100%

자료 :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2) 포털/SNS 분석

### ■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은 텍스트 데이터의 언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기술에는 자연어처리, 학습 알고리즘, 언어모델링 등이 있음
-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정제된 데이터를 토대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고, 단어의 빈도를 노드의 크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패턴을 그래프와 매트릭스를 통해 나타낼 수 있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잠재변수들의 공통된 의미를 해석하고자 텍스트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포털/SNS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

### ■ ‘정조대왕능행차’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트톰(Textom)을 이용하여 웹환경에서 ‘정조대왕능행차’ 키워드를 수집하고, 정제하여 일괄처리함
-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이버(블로그, 뉴스)와 다음(블로그, 뉴스), 구글(뉴스)에서 추출
- ‘정조대왕능행차’를 검색어로 하여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키워드 트렌드를 파악함
- 키워드 트렌드 및 연관어 분석결과 :
  - 키워드 트렌드는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된 뉴스 및 블로그 건수를 월별로 나타냄
  -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10월 분석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조대왕능행차 뿐만 아니라 화성 정조효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가 개최되기 때문으로 추정됨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구간이 취소되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검색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정조대왕능행차’와 관련성이 높은 연관어를 살펴보면, ‘수원’, ‘채제공’, ‘번암’, ‘명재상’,

‘축성’, 정조시대, ‘화성’, ‘을묘년’ 순임

- 변암 체재공 등 인물 관련 키워드, 수원 및 화성과 같은 지명, 그리고 1793년, 을묘년 등 시간 키워드가 높은 연관성이 나타남

[그림 2-12] ‘정조대왕능행차’ 키워드 트렌드 및 워드클라우드



자료 : 텍스톰(<http://www.textom.co.kr/>)

<표 2-9> ‘정조대왕능행차’ 키워드 빈도 분석(상위 30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수원	332	11	유물	71	21	수원화성	34
2	채제공	235	12	정조대왕	70	22	후손	32
3	변암	155	13	원행	67	23	행차	29
4	명재상	142	14	현릉원	63	24	보존	28
5	축성	131	15	능행차	50	25	보물	27
6	정조시대	116	16	수원화성박물관	50	26	재실터	26
7	화성	112	17	정조	46	27	현재	25
8	을묘년	101	18	총리대신	44	28	김효상	24
9	이주	99	19	행렬	39	29	조선	23
10	1793	81	20	수원시	38	30	용건릉	21

자료 : 텍스톰(<http://www.textom.co.kr/>)

## 제 3장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분석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및 추진현황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사 종목 사례분석



##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이해

### 1)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 ■ 유네스코 창설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기념물, 유적지 등 인류역사 흔적에 대한 보호에 관심이 증대됨
- 이에 국제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 평화를 건설한다는 이념 아래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창설됨<sup>18)</sup>
  - 1945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이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였으며, 1946년 11월 4일 20개국<sup>19)</sup>의 비준을 얻어 발효됨
- 세계유산보호와 창의성을 위한 문화발전, 교육, 문화, 과학 분야에서의 평생교육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역할을 수행 중임

〈표 3-1〉 유네스코 본부 개요

구분	내용
창설일	• 1945년 11월 16일(유네스코헌장 채택일)
본부소재지	• 프랑스 파리
역할	•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 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 (Laboratory of Ideas) •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 (Standard-Setter) • 지식 정보의 수집과 보급 (Clearing House) •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Capacity-BUILDER) • 국제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Catalyst for Cooperation)
회원국	• 정회원 193개국, 준회원 11개국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1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19) 미국, 영국, 중국, 터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체코, 이집트, 인도, 레바논, 멕시코,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프랑스, 그리스가 포함됨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 유네스코 최초의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협약은 1972년 제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임<sup>20)</sup>
  -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훼손 위험이 있는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류 유산의 파괴를 방지하고, 세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목적으로 함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sup>21)</sup>를 지닌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협약가입국의 노력과 정부 간 기구의 설치와 기능, 세계유산 목록 등을 규정함
  - 즉, 국제적으로 OUV를 가진 유산을 인정하며<sup>22)</sup>, 이를 전 인류 모두가 보호하여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노력함
-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OUV를 가진 유산은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분류됨

[그림 3-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분류

<b>문화유산</b> (Cultural Heri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념물</b>: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b>탁월한 보편적 가치</b>가 있는 유산</li> <li>▪ <b>건축물군</b>: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b>탁월한 보편적 가치</b>가 있는 유산</li> <li>▪ <b>유적지</b>: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b>탁월한 보편적 가치</b>가 있는 유산</li> </ul>
<b>자연유산</b> (Natural Heri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에서 이룩된 자연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b>탁월한 보편적 가치</b>가 있는 것</li> <li>▪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b>탁월한 보편적 가치</b>가 있는 것</li> <li>▪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b>탁월한 보편적 가치</b>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li> </ul>
<b>복합유산</b>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b>하는 유산</li> </ul>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20) 임동희·로저 L. 자벨리(2019).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비교와 담론』.  
 21) 국경을 초월할만큼 독보적이며, 현재 및 미래세대의 전인류에게 공동적으로 중요한 문화 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함  
 22)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유산의 등재기준 충족과 진정성 및 완전성을 충족해야 하고 유산의 보호 및 관리계획을 구비해야 한다”고 운영지침에 규정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 및 추이

- 2019년 기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가입된 회원국은 총 194개국이며, 이 중 27개국은 등재유산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계에 따르면, 등재 종목은 총 1,121건이며, 이 중 869건이 문화유산, 213건이 자연유산, 39건이 복합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음(2019년 10월 검색기준)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121건 중 유럽과 북미지역은 총 529건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47.19%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142건(12.67%)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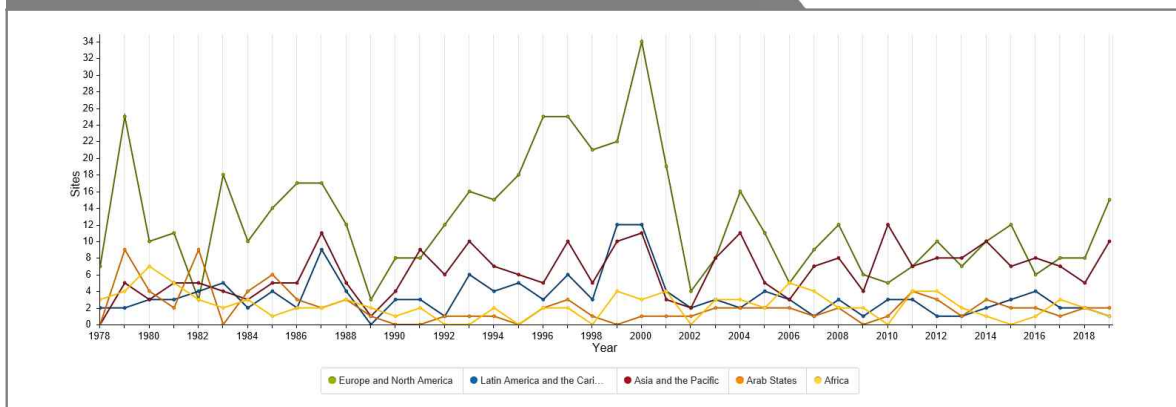
〈표 3-2〉 지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

지역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계	비율(%)	등록국가
아시아-태평양	189	67	12	268	23.91	36
유럽·북미	453	65	11	529	47.19	50
남미 및 카리브해	96	38	8	142	12.67	28
아프리카	53	38	5	96	8.56	35
중동	78	5	3	86	7.67	18
합계	791	208	36	1,035	92.33	149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계리스트(<http://whc.unesco.org/en/list/stat#d1>)

- 지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지역의 세계유산 등재 집중 현상이 급격하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및 북미 중심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3-2] 연도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현황(지역별)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계리스트(<http://whc.unesco.org/en/list/stat#d1>)

■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

- 무형문화유산은 유물, 기념물, 의례, 축제 행사, 공연 예술, 구전 전통, 사회적 관습, 자연 및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후손에게 계승하는 전통이나 살아있는 표현물 등이 포함됨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승되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보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소멸해버림
  -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유산은 영원히 소멸하거나 과거에만 있었던 관습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세계화 체제의 가속화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 다른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은 문화 간 소통을 지원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함
- 무형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가장 중요함
  - 지식 전수에 대한 가치는 한 사회 내에서도 소수 집단이나 주류 집단 모두에게 중요함
-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표 3-3)

〈표 3-3〉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구분	구성요소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전통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이 참여하는 오늘날의 농촌 및 도시 문화의 관습을 나타냄</li> </ul>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닌 것과 비슷한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공유함</li> <li>• 세대 간 전해지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해 거듭 변화한 것이며, 사람들이 정체성과 연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임</li> <li>•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면서 개인이 하나 또는 여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전체 사회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도록 정체성과 책임감을 강화시킴</li> </ul>
대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또는 다른 공동체로 지식, 전통 기술 그리고 관습을 전하는 보유자들에 의해 좌우됨</li> </ul>
공동체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전수하는 공동체나 집단 혹은 개인이 인정할 때에만 의미가 있음</li> <li>• 이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특정 표현물이나 관습을 이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없음</li> </ul>

자료 : 함한희(2019).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개정판』.



###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성립 배경

- 세계유산협약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자연환경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무형유산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1972년 이래 지속적으로 범주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함<sup>23)</sup>
  -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을 채택함
  - '1990년대 인간문화재제도(Living Human Treasure Systems)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포(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
- 즉, 유물과 완성품만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과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살아있는 문화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기저에 있음(장정아, 2008)

〈표 3-4〉 세계유산협약 이후 무형문화유산 관련 유네스코 주요 활동

연도	내용	의미
1972년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보호 시작
1973년	• 볼리비아 정부의 민속 보호를 위한 요청	• 미흡한 성과
1982년	• 세계문화정책회의 개최	• 문화유산의 정의에 무형문화유산을 포함
1983년	• 유네스코 민속문화 보호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립	•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안 채택에 영향
1989년	•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 채택	• 각국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 및 민속에 대한 목록화 작업
1993년	•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의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 소개	• Living Human Treasure 제도로 채택
1996년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보고서 발간	• 1972년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 무용이나 구전과 등의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유산들의 실제분포 범위 및 가치에 맞는 다른 형태의 공인 체계 개발 요청
1997년	•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시행 결정	• 특정한 물질문화에 대한 역사가 아닌 이를 사용한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의 행위를 포함하는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접근 •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간 창조와 소통의 과정을 강조(Arizpe, 2004)

자료 : 신동욱(2019)을 토대로 재구성.

23) 신동욱(2019). 『무형문화유산 가치 변화 연구』.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함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함(함한희, 2019)
- 주요 목적은 사회 변화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상실, 파괴의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표 3-5〉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목적

구분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1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의 보호</li> <li>•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존중</li> <li>•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과 상호 이해 증진</li> <li>• 국제적 협력과 지원 도모</li> </ul>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해야 함

〈표 3-6〉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무형문화유산 정의 및 범위

구분	내용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li> </ul>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li> <li>•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li> <li>• 자연과 우주에 관한 사회적 관습</li> <li>•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li> <li>• 전통 기술</li> </ul>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한편, 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은 2008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됨
  - 2005년까지 70개국 90개 종목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및 절차

### ■ 등재기준 및 종목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임<sup>24)</sup>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는 해당 유산 종목이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과 공동체에 유의미하며, 소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임
-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이하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이하 대표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함
  - 긴급보호목록은 지속적인 재창조와 전승이 위협받는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목적이며, 대표목록은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된 유산으로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임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표 3-7〉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기준

구분	내용	
긴급보호 목록 등재기준	기준1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2	•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3	•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4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5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6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대표목록 등재기준	기준1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2	•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3	•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4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5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24) 국가무형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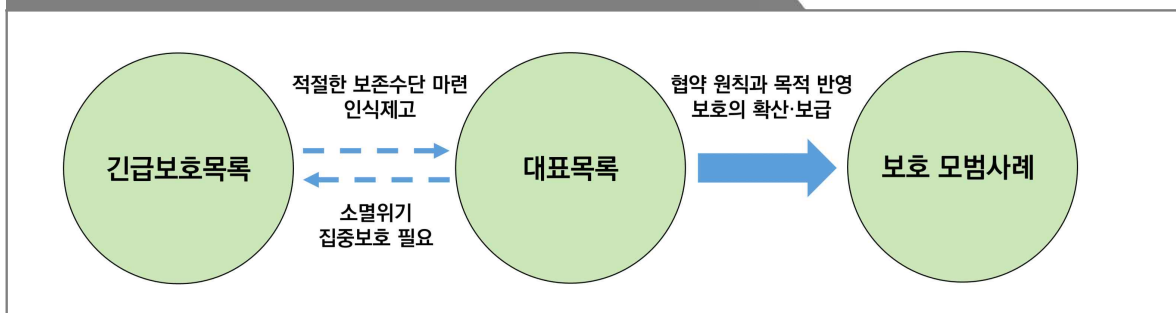
- 또한, 유네스코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잘 반영하는 ‘무형유산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을 대상으로 보호 모범사례를 선정함(김동현, 2019)
- 보호 모범사례는 국가와 공동체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함으로써 각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를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음
-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과 잘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제안할 것을 권장하는 운영지침을 제시함

〈표 3-8〉 보호 모범사례 평가 기준

구분	내용	
보호 모범사례 평가기준	기준1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협약 제2조 3항에 정의된 것 같이 보호라는 개념을 포함할 것
	기준2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소지역, 지역 및/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할 것
	기준3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반영할 것
	기준4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이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력 증진의 유효성에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기준5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관련 공동체, 집단 또는 해당할 경우 개인의 참여에 의해 이행되어왔거나, 혹은 이행되고 있으며, 관련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획득하여야 할 것
	기준6	• 해당 프로그램, 프로젝트 혹은 활동은 그 사례에 따라 소지역,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의 보호 활동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 협약의 운영지침 1장 11조 38항에 따르면 무형유산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과 보호조치의 유무에 따라 목록 간 이동도 가능함

[그림 3-3]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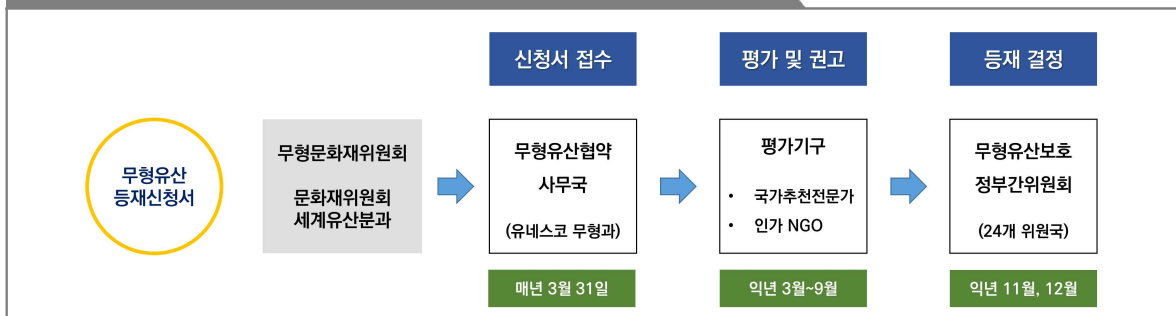


자료 : 김동현(2019). 『기지사줄다리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재방안 연구』.

### ■ 등재신청 절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은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종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sup>25)</sup>,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 (국내)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통해 신청대상을 선정함
- (국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에서 심의·결정함
  - 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 (제출익년 3월~9월)
  - 최종심의·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제출익년 9월~11월)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임
  - 각 국가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와 평가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관련 신청서 심의, 무형유산기금 운영, 무형유산협약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의결함(연 1회 회의 개최)
- 평가기구는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목록 등재, 국제원조)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국가추천전문가, 6개의 인가 NGO 대표자로 구성됨
- (등재 소요기간) 문화재청(1년), 유네스코(2년) 심의 기간만 최소 3년이 소요됨

[그림 3-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 절차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9.12.6.)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탈춤」 선정』.

25) 원칙적으로 신청서는 매년 제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다 등재국(세계 3위)으로서 등재 심사가 2년에 1건으로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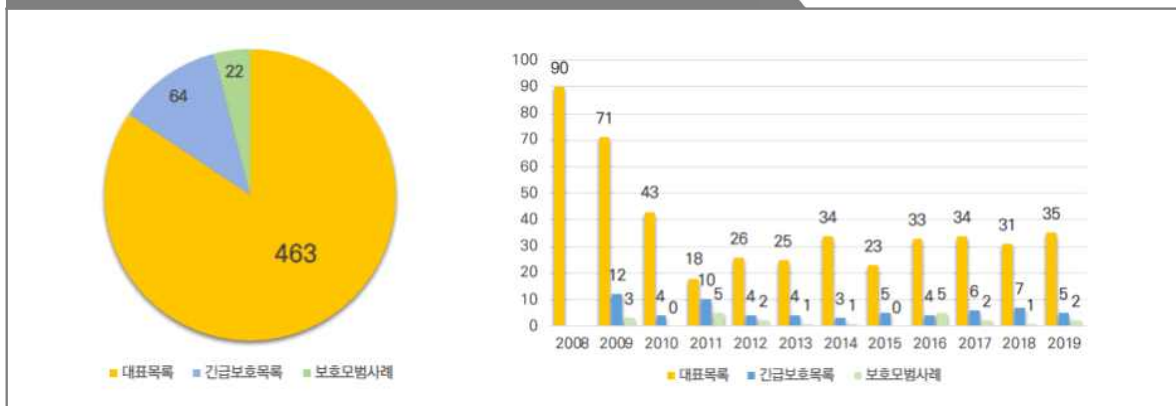
###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전 세계 124개국 463건(2019년 등재기준)<sup>26)</sup>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34개국 64건이며, 보호모범사례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총 22건임
-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 90건(유네스코가 2001년, 2003년, 2005년 각각 선정)은 2008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됨

[그림 3-5]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단위 : 건)



#### ■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였으며, 이 중 2건은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등재함
  - 대표목록 중 가장 먼저 등재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는 2003년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으로 선정된 종목임<sup>27)</sup>
  - ‘매사냥(2010년)’, ‘줄다리기(2015년)’, ‘씨름(2018년)’은 공동등재 종목임
- 공동등재 종목인 ‘매사냥’을 제외한 19개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26)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웹페이지(<https://ich.unesco.org/en/lists#2008>)에서 2020년 10월 23일 검색 목록을 기준으로 함  
 27)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을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종목들을 신청을 받아 총 90개 종목을 무형문화유산 결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통합됨(신동욱, 2019)

- 의식과 범주에 속하는 ‘종묘제례’와 음악의 범주에 속하는 ‘종묘제례악’은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하나로 통합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과 ‘줄다리기’는 하나로 통합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제주해녀문화’, ‘아리랑’, ‘김장문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임

〈표 3-9〉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

구 분	유네스코 등재년도 (등재유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년도	주요 내용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년 (대표목록)	종묘제례 197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제례는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 종묘제례악은 의식을 위해 연주하는 기악(樂)과 노래(歌) 춤(舞)을 의미</li> <li>• 국가 차원에서 효 사상을 실천하는 의식으로서 민족공동체의 질서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약 500년간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li> </ul>
		종묘제례악 1964년	
판소리	2003년 (대표목록)	196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li> <li>• 청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지식층과 서민층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통합 기능을 담당</li> </ul>
강릉단오제	2005년 (대표목록)	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옷날(음력 5월 5일)을 전후하여 펼쳐지는 강릉 지방의 향토 제례 의식</li> <li>• 한국의 역사와 독창적인 풍속이 전승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축제</li> </ul>
영산재	2009년 (대표목록)	1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li> <li>• 민중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참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식</li> </ul>
남사당놀이	2009년 (대표목록)	196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명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서민층에게 행한 놀이로 농악 놀이 및 묘기, 탈놀이 등을 행함</li> <li>•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인형극이며 양반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한의 정서를 풀어내어 민중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수행</li> </ul>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2009년 (대표목록)	198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곳으로 부부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li> <li>•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으로서,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을 내포</li> </ul>

&lt;표 계속&gt;

구 분	유네스코 등재년도 (등재유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년도	주요 내용
강강술래	2009년 (대표목록)	19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래와 춤이 하나로 어우러진 부녀자들의 집단 놀이로 추석을 전후하여 달밤에 행해짐</li> <li>한국 고유의 원시종합예술로 여성의 기상을 보여준 민속놀이이며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li> </ul>
처용무	2009년 (대표목록)	197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용가면을 쓰고 추는 공중무용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는 의식</li> <li>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에 기반</li> </ul>
매사냥	2010년 (공동등재)	미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력 10월 초부터 이듬해 해동이 될 때까지 훈련된 매로 꿩을 잡는 사냥놀이</li> <li>특히 귀족층에서 성행되었으며 북방 지역에서 전래되어 삼국 시대로 이어지며 활성화</li> </ul>
대목장	2010년 (대표목록)	19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 짓는 일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목수를 의미</li> <li>목조건축이 발달하였던 시기에 엄격한 기법 전승으로 기문을 형성</li> </ul>
가곡	2010년 (대표목록)	196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3대 전통음악 중 하나로 시조시에 곡을 붙여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li> <li>오랜 세월 동안 변화 없이 명맥을 유지하였고 지식층에서 애창하였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전승되어 예술적 가치가 높음</li> </ul>
한산모시짜기	2011년 (대표목록)	196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한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임</li> <li>모시는 한국에서 오래 전부터 직물로 사용되어왔으며 고려시대에는 모시가 농가 부업으로 가장 중요한 서민 생활의 물물교환 역할을 함</li> </ul>
택견	2011년 (대표목록)	198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울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로서 민간에서 널리 행해짐</li> <li>다른 무술에 비해 질박하고 섬세하며,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고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로서 공중 보건을 증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li> </ul>
줄타기	2011년 (대표목록)	197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에 맨 줄 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발림을 섞어가며 여러 재주를 보여주는 놀이로서 주로 음력 4월 15 일이나 단오날, 추석 등 명절날에 행해짐</li> <li>음악 반주에 맞추어 줄타기 곡예사와 바닥에 있는 어릿광대가 서로 재담을 주고받으며 구경꾼이 함께 어우러진 놀이판을 이끈다는 의미함</li> </ul>



〈표 계속〉				
구 분	유네스코 등재년도 (등재유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년도	주요 내용	
아리랑	2012년 (대표목록)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대표적 민요로 한민족의 정서가 녹아있는 노래이자 가장 널리 공유되고 있는 대표적 문화</li> <li>• 인류 보편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즉흥적 편곡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 쉬워 무형문화재로서의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우수</li> </ul>	
김장문화	2013년 (대표목록)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동 3~4개월간을 위한 채소 저장의 방법으로 늦가을에 행하는 행사를 의미</li> <li>•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적 문화, 공동체 정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의 가치를 내포</li> </ul>	
농악	2014년 (대표목록)	진삼천포농악	19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매기, 논매기, 모심기 등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서 비롯된 음악으로 타악기를 치거나 행진, 의식, 노동, 판놀음 등을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킴</li> <li>• 지방마다 다양한 가락의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민중의 감정과 정서를 드러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중음악</li> </ul>
		평택농악	1985년	
		아리농악	1985년	
		강릉농악	1985년	
		임실필봉농악	1988년	
		구례잔수농악	2010년	
줄다리기	2015년 (공동등재)	영산줄다리기	196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보름날에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 줄을 마주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놀이</li> <li>•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민속놀이이며 농촌사회의 협동 의식과 민족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문화적 의미를 지님</li> </ul>
		기지시줄다리기	1982년	
제주해녀문화	2016년 (대표목록)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를 위해 산소마스크 없이 수심 10m까지 잠수하여 조개류를 채취하는 해녀는 여성의 어로문화와 한국의 해양문화를 상징</li> <li>• 물질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 동료 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이룸</li> </ul>	
씨름	2018년 (공동등재)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사람이 살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li> <li>• 명확한 역사성과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현재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됨</li> </ul>	

자료 :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및 추진현황

### 1)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신동욱, 2019)
  - 첫째, 등재신청 국가, 등재신청 종목명, 관련 담당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임
  - 둘째, 등재신청 종목의 주체(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와 신청 종목 관련 지역과 지리적 범주에 대해 기술해야 함
  - 셋째, 등재신청 종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기술해야 함
  - 넷째, 등재신청 종목이 등재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각 항목에 대해 기술해야 함
- 즉, 등재신청서에는 신청 종목이 어떤 사회 집단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의 동의 및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하여 등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3-6]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주요 내용

구분	기준	작성 내용
기본정보	신청 국가, 신청명, 관련담당자 등	
신청종목	종목의 주체(개인, 집단, 공동체)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명시하는 정부간위원회가 인정한 공동체, 개인, 집단이어야 함
	관련 지역과 지리적 범주	• 신청 종목이 실천되고 있는 지리적 범주 기술
등재기준 충족 요건	등재신청 종목 규정	• 현대의 사회 문화적 기능 • 등재 신청 대상을 보유한 사람들과 실천 주체의 특성 • 등재 신청 대상 관련 사람들의 역할 • 등재 신청 대상과 관련 지식과 기술의 전승 양상
	가시성(Visibility) 확보·중요성 인식·의사소통에 기여	• 지역적, 국가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체, 집단, 개인의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보호(Safeguard) 방안	• 보호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노력 • 보호 방안 • 보호를 위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 • 국가의 협력
	등재추진 과정에서의 집단의 참여 및 동의	• 관련 사회, 집단, 개인에 대해 그들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동의 여부 • 공동체, 단체, 개인, 관련 NGO의 해당 유산 보호에 대한 참여와, 보호의 강화에 대한 의지 • 보고서 준비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
	국가 목록 포함 여부	• 국가목록에 신청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자료 : 신동욱(2019). 『무형문화유산 가치 변화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 변화

- 우리나라는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지정 문화유산보다는 국가무형문화재 가운데 대표목록을 우선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음(김준봉, 2014)
  - 국가 차원의 전승체계나 보호 정책에 의해 인정된 전승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어 미지정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등재추진이 어려웠음
-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경향을 살펴보면, 2012년을 이후 전승 주체, 역사성, 지리적 범위, 보호 주체 등에 있어 ‘원형 보존 및 국가지정’ 중심에서 ‘변화 수용 및 일반대중’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남<표 3-10><sup>28)</sup>
  -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는 문화’로서 그 전승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유네스코 협약에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임(함한희, 2020b)
  - 즉, 공동체나 집단이 충분히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창조된 문화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음

<표 3-10>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속성 비교

종목명	전승 주체		역사성		지리적 범위		보호 주체		
	국가 지정	국가 미지정	역사성 강조	변화 강조	국가지정 지역중심	활동영역 중심	국가 중심	지역 중심	대중 중심
영산재	◎		◎		◎		◎		
남사당놀이	◎		◎		◎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		◎		◎		
강강술래	◎		◎		◎		◎		
처용무	◎		◎		◎		◎		
대목장	◎		◎			◎	◎		
가곡	◎		◎		◎		◎		
한산모시짜기	◎		◎		◎			◎	
택견	◎		◎		◎			◎	
줄타기	◎		◎		◎		◎		
아리랑		◎		◎					◎
김장문화		◎		◎					◎
농악		◎		◎					◎
줄다리기		◎		◎					◎
제주해녀문화		◎		◎					◎

자료 : 신동욱(2019). 『무형문화유산 가치 변화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28) 단,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20개 종목 중에서 2001년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제도에 의해 선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와 공동등재 종목 중 ‘매사냥’, ‘씨름’을 제외한 15개 종목을 분류함

## 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현황

### ■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추진 현황

- 우리나라는 2018년 ‘연등회(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함
  - 202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sup>29)</sup>
  - 2020년 12월에 개최되는 제15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sup>30)</sup>
- 또한, 2019년 12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의 탈춤’을 2020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함
  - ‘한국의 전통 장(醬) 문화(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를 차기(2022년) 신청대상으로 선정함
-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탈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며, 등재여부는 2022년 12월 경 개최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1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차기 신청대상인 ‘한국의 전통 장(醬) 문화’는 2022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년에 등재가 결정될 예정임

[그림 3-7] 한국의 탈춤과 장(醬) 문화



자료 : 문화재청(<http://www.cha.go.kr/>)

29)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무형유산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원(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함

30) 문화재청 보도자료(2020.11.17.).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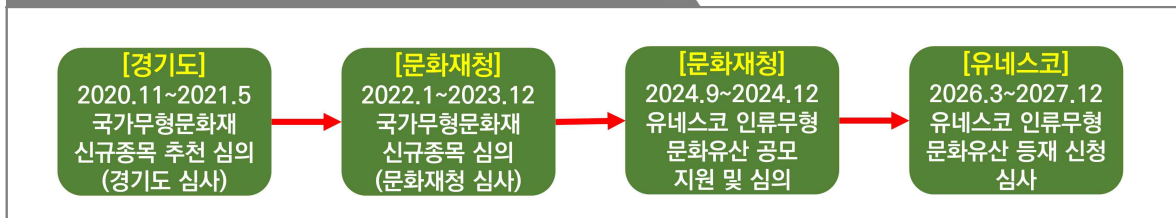
■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현황

- 정조대왕능행차는 2017년부터 59.2km 을묘원행 전 구간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2018년에는 서울, 수원, 화성과 더불어 경기도가 참여함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완벽복원 : 2017년 9월 23일~24일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추진(서울, 경기, 수원, 화성) : 2018년 10월 6일~7일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관련 지자체(서울·경기·수원·화성) 협의<sup>31)</sup> : 2019년 12월 17일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는 화성시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0년 4월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함
  - 정조대왕능행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연구용역 : 2020년 4월~8월

■ 향후 추진계획

- 정조대왕능행차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지정(최소 3년 소요)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소요 기간은 최소 6년으로 예상됨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추천 경기도 심의 : 2020년 11월~2021년 5월
  -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문화재청 심의 : 2022년 1월~2023년 12월
  - 문화재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모 지원 및 심의 : 2024년 9월~12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및 심사 : 2026년 3월~2027년 12월

[그림 3-8]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신청 예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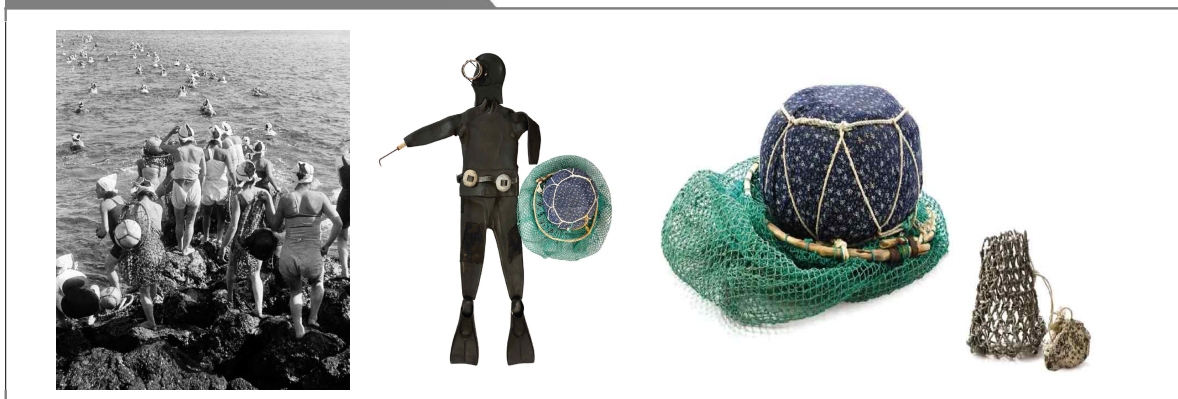
31)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관련 총괄 업무를 화성시가 수행함

### 3)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사례

#### ■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사례

- (추진과정)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종목으로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재를 추진함
  - 2006년 해녀심포지엄에서 최초 유네스코 등재를 제안하였으며, 2007년 제주도는 일본의 아마(海女)와 공동등재를 제안함
  - 2009년 제주도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문화재위원회 예비목록으로 선정<sup>32)</sup>
  - 2014년 3월 31일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년 등재가 무산되고,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결정됨
- (추진 주체) 약 4,500명의 해녀, 100마을 어촌계, 해녀회(잠수회),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548호)
- (유네스코 평가)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정체성 확립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점, 자연과의 상호 연계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시, 소설, 드라마, 음악 공연 등의 원천이 되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됨

[그림 3-9] 제주해녀문화 기록물



자료 : 국립무형유산원(2016). 『제주해녀문화 전시 도록』.

32)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사례<sup>33)</sup>

-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사월 초파일(음력 4월 8일)에 거행되는 불교 행사임
  - 2018년 유네스코 본부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년 등재 최종결정 예정
- (추진 주체)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종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담당자 등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등재추진 주체 구성을 위해 노력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를 추진함
- (등재근거 확보) 연등회 보존위원회, 조계종 문화부 등을 중심으로 국제 학술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재정리함으로써 등재를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 (참여 확산) 민간 중심의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 교육을 맡아 전통 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하고,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하여 연등회 행사 준비를 주도함
  - 연등회 준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불교 신앙의 여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 대중도 폭넓게 참여하는 축제의 성격을 지님
- (주요 시사점) 관주도의 재현행사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열린 축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등재추진 주체 구성,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 등재 근거 마련을 위한 체계적 준비,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3-10] 연등회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8.04.02.),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33) 2020년 10월 27일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유사 종목 사례분석

#### 1) 사례분석 개요

##### ■ 목적 및 대상

- (목적) 정조대왕능행차와 유사한 형태인 축제행렬(ceremonial processions) 사례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강조하는 가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대상) 2003년 이후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유사 종목 사례는 총 13개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유사 종목 사례 중 5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sup>34)</sup>

〈표 3-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유사 종목 사례

종목명	영문명	등재국가	등재년도
멘드리시오의 성 주간 행렬	Holy Week processions in Mendrisio	스위스	2019년
브뤼셀의 오메강, 연례 역사적 행렬과 대중 축제	Ommegang of Brussels, an annual historical procession and popular festival	벨기에	2019년
거대한 구조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가톨릭 기념 축제	Celebrations of big shoulder-borne processional structures	이탈리아	2013년
브뤼허의 '성혈(聖血)의 행렬'	Procession of the Holy Blood in Bruges	벨기에	2012년
알 아지 문화 -애가(哀歌), 행진, 시	Al 'azi, elegy, processional march and poetry	오만	2012년
앙트르 상브르 에 뫼즈의 행진	Marches of Entre-Sambre-et-Meuse	벨기에	2012년
코이요리티의 주님 성소 순례	Pilgrimage to the sanctuary of the Lord of Qoyllurit'i	페루	2011년
에히터나흐의 호핑 댄스 행렬	Hopping procession of Echternach	룩셈부르크	2010년
흘리네초쿠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Shrovetide door-to-door processions and masks in the villages of the Hlinecko area	체코	2010년
포파얀의 부활절 행렬	Holy Week procession in Popayan	콜롬비아	2009년
고라니 지방 벨레 (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Spring procession of Ljelje/Kraljice (queens) from Gorjani	크로아티아	2009년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Procession Za Krizen ('following the cross') on the island of Hvar	크로아티아	2009년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巨人像) - 거인과 용	Processional giants and dragons in Belgium and France	벨기에, 프랑스	2008년

자료 : 함한희(2020b).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제고』를 토대로 재구성.

34) 사례분석 대상은 (표 3-11)에서 '\*'로 표시함



## 2) 주요 사례분석

### (1)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巨人像) - 거인과 용

#### ■ 개요

- 거인이나 용과 같은 거인상과 함께하는 벨기에 및 프랑스 민속 축제 퍼레이드임
- 거인상은 14세기 말부터 많은 유럽 내 도시에서 시작된 종교적 퍼레이드로 벨기에 및 프랑스의 특정 지역에서 계속 연행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

〈표 3-12〉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구분	주요 내용
지역	• 벨기에 : 아트(Ath), 브뤼셀(Brussels), 덴더몬드(Dendermonde), 메헬렌(Mechelen) 등 • 프랑스 : 카셀(Cassel), 두에(Douai), 페즈나(Pézenas), 타하스콩(Tarascon) 등
개최기간	•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기간
주요 의식	• 거인상은 코스튬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함께 반주에 맞춰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거나 춤을 춤
공연예술성	• 민속 축제를 더욱 유쾌하게 만들며 특정한 축일을 기념하는 역할
도구	• 거인상의 키는 약 9m, 무게는 350kg 정도 수준 • 신화의 영웅, 동물, 위인 등 역사·종교·전설적 존재를 형상화
보존주체	• 거인상 제작 및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며, 벨기에 및 프랑스의 특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연행을 계승

#### ■ 무형문화유산 가치

- 거인상은 도시의 역사, 전설, 삶을 담은 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축제적·독창적인 전통문화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함

[그림 3-11] 벨기에 및 프랑스 축제 퍼레이드에 쓰이는 거인상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2) 고라니 지방 켈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 ■ 개요

- 소녀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을 행진하는 ‘크랄리체의 봄 행렬’은 고대의 문화유산으로서 주민들의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함
- 19세기 이전 시작된 풍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승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 유산 보존 운동, 아마추어 민속 무대에서의 재현 등을 통해 전승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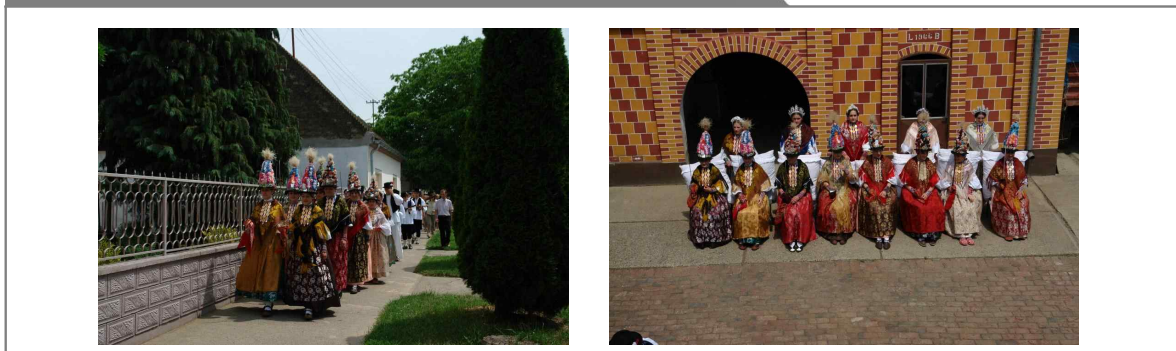
〈표 3-13〉 고라니 지방 켈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구분	주요 내용
지역	• 크로아티아 북서부, 슬라보니아 지방에 있는 고라니 마을, 다코보 마을 인근 지역
개최기간	• 매년 봄
주요 의식	• 왕으로 분장한 10명의 소녀들과 여왕으로 분장한 5명의 소녀들이 행렬을 이루어 오순절 전통 노래를 부르며 이웃집을 방문하고 연행함
공연예술성	• 여왕들의 행렬에서는 참가자들의 옷이나 춤 솜씨의 우아함을 강조함 • 크랄리체가 부르는 노래는 특별한 매력과 특정한 고풍적 표현을 드러냄
도구	• 왕 역할의 소녀들은 남자 모자와 검을 착용하고, 여왕 역할의 소녀들은 신부처럼 하얀 화환을 착용 • 오순절 전통 노래를 부름
보존주체	• 고라나츠(Gorjanac) 문화예술협회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의 협조 • 초등학교, 교회, 마을의 여러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

### ■ 무형문화유산 가치

- 지역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여왕들의 행렬을 보존·전승하면서 고라니 지방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산 보존 운동, 아마추어 민속 무대에서의 재현 등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함

[그림 3-12] 고라니 지방 켈레(크랄리체, 여왕)의 봄 행렬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3) 포파안의 부활절 행렬

#### ■ 개요

- 콜롬비아 남부의 포파안에서 성주간 기간에 거행되는 종교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찬양하는 행렬 의식임

〈표 3-14〉 포파안의 부활절 행렬

구분	주요 내용
지역	• 콜롬비아 남부 포파안 지역
개최기간	• 부활절 전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주요 의식	• 마리아, 그리스도, 십자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예수, 예수의 부활을 주제로 하는 5가지 행렬이 도심을 통과하여 2km의 길을 따라 행진 • 처음 4가지 행렬은 성경과 관련된 고통을 되짚는 엄숙한 분위기 연출 • 다섯 번째 행렬은 마지막 승리로서 영광스러운 토요일을 표현하며 앞의 연출과는 반대되는 분위기로 다양한 색과 꽃 등을 사용
공연예술성	• 공익, 즐거움, 공동체의 정체성 강화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 • 매년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아오며 관광 효과 증대
도구	• 파소(성유물을 모신 수레)는 밤마다 약 15개씩 총 70개가 등장 • 파소는 꽃이 장식된 나무 조각상으로 꾸며져 복잡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짐 • 관악기 치리미아(Chirimia)와 체명악기 과차라카를 주 사용, 기타와 마라카스 동원
보존주체	• 총회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조직자의 역할이 맡겨지고 당국이나 다양한 단체와 협력 • 450년 이상 이어져 가족 대대로 행사 지속

#### ■ 무형문화유산 가치

- 지역민들은 450년이 넘는 부활절 행렬 전통을 무형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결속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

[그림 3-13] 포파안의 부활절 행렬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4)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 ■ 개요

- 체코 공화국 흘리네츠크 지역<sup>35)</sup>의 힌스코 시와 인근 6개 마을에서 행해지는 카니발 행렬 전통
- 힌스코 시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으로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나 행렬은 일부 마을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음

〈표 3-15〉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구분	주요 내용
지역	• 체코 공화국의 흘리네츠크(Hlinecko) 지역의 하므리(Hamry), 스투드니체(Studnice), 보르토타(Vortová), 그리고 힌스코 시의 일부인 블라트노(Blatno) 마을
개최기간	• 사순절 직전인 재의 수요일 전 3일간의 슈로브타이드 기간
주요 의식	• 가면 쓴 남성들이 관악대와 함께 마을을 돌며 가정 방문 후 남성 4명이 가정의 번성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용 춤을 춤 • 마지막 행사로 암말 한 마리가 처형된 후 쓰러져 있다가 술을 먹고 부활하는 내용의 '암말의 처형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를 보고 가면 쓴 남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새 생명의 시작을 축하함
공연예술성	• 행렬은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드럼 세트 등으로 구성된 관악대를 확보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집집마다 방문하여 각 가정을 위한 의식 춤을 추고, 말과 몸동작으로 구경꾼들과 교류함
도구	• 가면은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구분되는데, 미혼 남성은 붉은색, 기혼 남성은 검은색을 착용함
보존주체	•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 사람들은 슈로브타이드 행렬과 가면을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승함

##### ■ 무형문화유산 가치

- 마을 공동체 내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고, 지역적·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그림 3-14] 흘리네츠크 지역 마을의 슈로브타이드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렬과 가면들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35) 체코 힌스코 시와 인근 지역을 지칭하며, 동부 보헤미아 남부의 모라비아(Moravia) 경계를 따라 있음



### (5)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 ■ 개요

- 크로아티아 흐바르(Hvar)의 달마티아 섬 내의 6개 마을에서 거행되는 부활절 행렬로서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의 고통과 수난, 성모마리아의 슬픔에 대해 애정 어린 연민을 표현함
- 1658년 최초의 기록에서 행렬을 표현한 것으로 볼 때,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행사로 추정됨

〈표 3-16〉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구분	주요 내용
지역	• 크로아티아 남부 흐바르의 달마티아 섬 중부의 옐사(Jelsa), 피트베(Pitve), 브리스니크(Vrisnik), 스비르체(Svirče), 브르반(Vrbanj), 브르보스카(Vrboska) 마을
개최기간	• 부활절 전주의 성목요일(Maundy Thursday)에 미사를 드린 후
주요 의식	• 교구의 주임 사제는 행렬이 마을을 지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섯 마을에서 찾아온 행렬을 차례로 맞이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이’는 마지막 100m를 전력으로 달려 신부에게 감 • 부활 주일 다음날 월요일(Easter Monday)에 ‘십자가를 짊어진 이’는 ‘주님의 연회’라고 부르는 성대한 축하연을 열고, 1년 동안 행렬을 선두에서 인도
공연예술성	• 행렬의 핵심 행사는 미리 선정된 칸타두리(kantaduri, 가수), 미리 정해둔 스타치예(stacije, 교회 나 예배당 또는 야외장소)에서 뮤지컬의 대화 형식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애가’를 부르는 대목
도구	•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를 선두로 하여, 촛대(candelabra)를 든 친구 2명과 초와 등불
보존주체	• 과거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선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미리 등록함

#### ■ 무형문화유산 가치

- 흐바르 섬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부활절 관련 행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흐바르 섬 주민들의 종교·문화·사회 정체성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김

[그림 3-15] 흐바르 섬의 자 크리젠(‘십자가를 따라서’) 행렬



자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heritage.unesco.or.kr>)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 유사 종목 사례의 공통점

- 국가,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문화 정체성으로 확인된 유산임
- 전통적인 관습이면서도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을 강조함
  - 축제행렬의 '원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는 유산'이라는 점이 중요함
  -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강조됨
  - 즉, 오래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시대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고,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엿보임
- 지역 공동체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을 통해 사회적 결속과 협동이 강조됨
  - 축제행렬의 경우 보유자나 단체들만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없으며,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함
-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는 생산기술, 지식 등이 전승되는 점이 강조됨
- 축제행렬이 진행되는 과정이 전통적인 의례 또는 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
  - 주로 서유럽에서는 카톨릭 의식의 일환으로 해마다 열리는 종교행사로 거행됨
-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 또는 단체가 있음

####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종목 보유자, 집단, 공동체가 자신들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
-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즉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을 부각해야 함
- 정조대왕능행차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고, 공동체 기반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
- 정조대왕능행차를 통해서 전통시대의 의례, 음식, 복식 등 다양한 유물 및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정조대왕능행차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사 종목 사례와 달리 효 사상, 애민 사상 등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철학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제 4 장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검토

1.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2. 경제적 가치평가 필요성 검토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충족여부 검토





## 1.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 1) 분석 배경

#### ■ (문제제기) 정조대왕능행차의 축제적 성격과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정체성

- 정조대왕능행차가 현대에 와서 재현된 행사이고, 뚜렷한 전승자 혹은 전승 집단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으로 규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일부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 및 창의성 증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는 점과 향후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은 정조대왕능행차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음
  -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면서도 통합성을 토대로 창의적 예술성을 나타내면서 현대적 활용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 이처럼 정조대왕능행차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준혁(2008b)의 연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제안한 바 있음
  - 따라서,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재정리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 (과제)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근거와 유네스코 등재신청 논리 마련

- 정조대왕능행차가 현재적 시점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가치형성에 기여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
- 즉, 정조대왕능행차가 단순히 능행의 외형을 모방 재현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록물을 바탕으로 보편적 정신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임
- 본 연구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와 관련된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통의 축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이종주, 2020)

## 2)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분석

### (1) 능행의 무형문화유산 가치와 축제적 성격<sup>36)</sup>

#### ■ 조선시대 능행의 문화적 성격 ‘의례와 소통’

##### ■ 종묘제과의와 능행의 차이

- 능행은 종묘대제와는 달리 의례적 성격이 약하며, 오락적 기능과 군사적 위함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음
- 특히, 왕과 백성의 소통이 가능했으므로 백성에게는 왕의 행자 자체가 구경거리이자, 하소연할 수 있는 최고 존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음

##### ■ 즉 왕의 입장에서는 ‘과시와 베품’, 백성의 입장에서는 ‘놀이와 소통’의 의미를 가진 것임

#### ■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적 성격 ‘맺힘과 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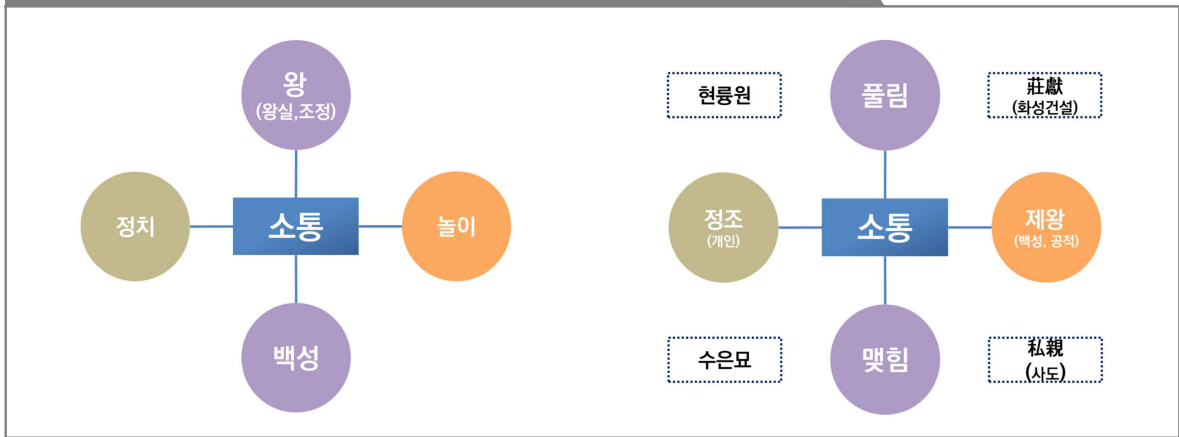
- (사자로서의 맺힘과 과시) 정조는 재위 24년간 66회의 능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한영우, 2007), 부친인 사도세자에 대한 능행이 영무원 18회, 현릉원 13회로 가장 많았음
  - 선왕에 대한 효심과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김문식, 2007)
- 영무원 행차의 의미 :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적 복권
  - 정조가 영무원과 현릉원<sup>37)</sup> 행차를 선조들에 대한 능행과 동일시하면서 사친을 선조들과 대등하게 올려놓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현릉원 천장의 의미: 사친 복권의 공식화
  - 정조가 적통을 자처할 수 없는 정신적 결핍과 현실적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수은묘는 맺힘의 공간으로 해석됨
  - 1789년 10월 7일 사도세자의 화성 현릉원 이장은 단순히 명당을 찾아가는 천장이 아니라, 부친을 억울한 죽음에서 풀어주는 해소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함

36) 이종주(2020). 『화성 능행 재현행사의 무형문화적 가치 시론: 정조 능행과 재현행사의 문화 상징적 의미』를 토대로 재작성.

37) 1762년(영조 38) 뒤주 속에서 사망한 사도세자는 7월 23일 배봉산 아래 언덕에 매장되었으며,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으나 1776년(정조 즉위) 3월 이를 영무원(永祐園)으로 개칭하고, 존호도 사도(思悼)에서 장헌(莊獻)으로 개칭함. 또한, 1789년(정조 13) 영우원은 다시 현릉원(顯陵園)으로 바뀌었고, 같은 해 10월 7일 현 위치(화성 용릉)로 이장됨

- 현릉원의 이장으로 사도세자는 죽어야 할 죄인, 왕의 사친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왕실과 조정의 법규 하에서 그의 복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도세자의 복권을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정조의 화성건설과 일련의 행사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 4-1] 조선시대 능행과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적 성격



자료 : 이종주(2020), 『화성 능행 재현행사의 무형문화적 가치 시론: 정조 능행과 재현행사의 문화 상징적 의미』를 토대로 재작성.

### ■ 사친 복권과 개혁 이념화

- 백성과 왕의 소통의 길 : 정조는 능행을 통해 사대문 안 백성뿐 아니라, 시흥·군포·안양·화성 등의 백성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함
- 기존 세력을 향한 정치적 과시의 길 : 사흘 이상 수도권 중심부를 거치는 능행은 왕권의 위대함을 가장 극명히 나타내는 상징적 행사임
- 백성과 대면, 개혁이념 형성의 길 : 정조는 백성과의 소통을 통해 개혁정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능행은 개혁적 힘을 얻어 실천하는 사회정치적 변혁의 동인이었음
- 새로운 세계 실현의 길 : 사친이 복권된 새로운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복권된 터에 자신의 개혁이념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상징함
  - 화성이라는 신도시의 건설에 대하여 이상적 도시의 건설, 정조 개혁이념의 상징 등 많은 해석이 이미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시도됨(김준혁, 2008a; 유봉학 등, 2001)
  - 즉, 정조대왕능행차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희망과 자부심이 농축된 행사임

## ■ 혜경궁 진찬연: 복권의 완성과 공적 축제화

- 혜경궁 진찬연<sup>38)</sup>은 공식적으로는 홀로 남은 혜경궁 홍씨를 위한 잔치였으나, 의미상으로는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진찬연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정조와 혜경궁 홍씨는 개인적 기쁨과 호사를 백성들과 함께 하였음
- 사도세자는 단순히 복권된 존재가 아니라 백성의 축하를 받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됨
- 개인적 치유행사가 사회적 치유로 확산함으로써 진찬연은 사회적 축제로 승화됨

[그림 4-2]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현



자료 : e수원뉴스(<http://news.suwon.go.kr/>).

## ■ 소결 :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적·축제적 미학적

- 정조대왕능행차는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축제로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매우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제의적 의례이자,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소통이며,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축제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창조적 힘이라고 할 수 있음
  - 비장미에서 장엄미, 희극미까지 미적 감정의 총체적 성격을 보여줌
- 정조는 이 능행을 해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축제의 기본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38) 1795년 음력 윤 2월 13일(정조 19년) 화성 행궁에서 벌어짐

## (2)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문화적 성격

### ■ 1970년대 중반 화흥문화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화산능행차 재현

- 수원시에서 1975년부터 '화흥문화제'의 일환으로 정조대왕 화산능행차를 진행함
-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참여 시민들에게 수원 화성(華城)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조 능행'으로 표상되는 인식과 환기의 시기임
- 단순한 가장행렬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시(市)의 상징으로 표상화하고, 그것을 시민정신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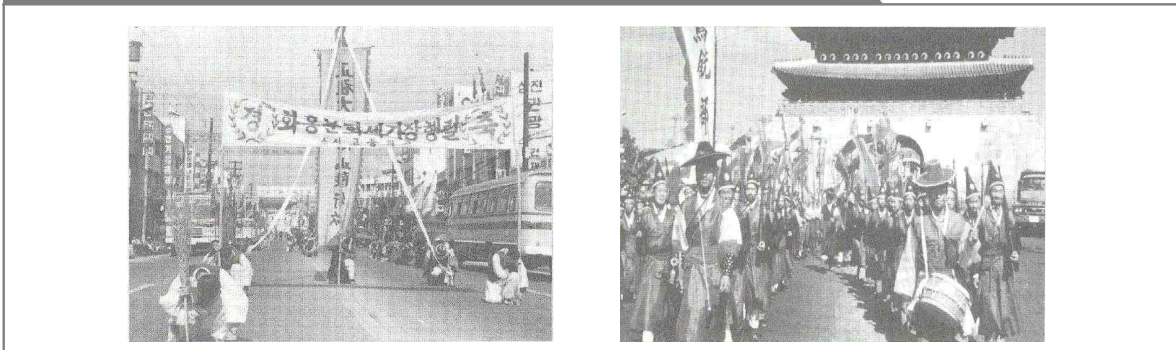
### ■ 1996년-2015년 : 원형복원과 시민주도 정착기

- 화흥문화제가 화성문화제로 명칭을 교체한 것은 시민들이 유형유산(화성)과 무형유산(능행차)을 통합하여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문화적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시되면서 시민참여 가치가 확산됨

### ■ 2000년대 초에서 현재 : 광역축제화, 시민주체 시대

- 정조가 당시 능행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현대적 공간에서 재창조하고, 각 지역의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함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함

[그림 4-3] 1970년대 화흥문화제의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자료 : 이흥구(2008).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연시고』 재인용.

■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대

- 시민들을 단순히 관람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행렬에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함
  - 지역사회 관련 단체가 행사에 적극 참여함
  - 시민체험단, 어린이 체험단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 시민 계층을 수용하려고 노력함
  - 시민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결정함
-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을 진행하기 위해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배역을 시민공모로 선발
  - 2014년에는 수원시민 중에서 정조대왕 역할을 선발함으로써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전통문화축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서울시는 기존에는 주요배역을 위주로 시민 공모했으나, 2019년부터는 단순히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역사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함
- 창덕궁, 배다리, 노들섬, 수원 화성, 용릉 등 주요 거점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함
  - 정조대왕능행차를 재현하는 퍼레이드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의료보험제도 등을 하소연하는 격쟁(擊箏) 상황극 <왕이서여~> 연출하기도 하였음
- 시민 배다리 체험을 개최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하이라이트인 배다리를 한강이촌지구에서 노들섬까지 약 300m구간에 설치하여 노들섬에 진입이 가능하였음

〈표 4-1〉 화성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참여인원

참여분야		주요내용	참여인원
시민축제기획단		축제프로그램 기획	30명
프로그램 참여	영우원 천장	정조대왕 및 주요공신 역할	21명
	천장 행렬단	국장 퍼포먼스 행렬	400명
	공연프로그램	화성시이 판을 열다 (안녕초등학교, 화성시생활예술통아리 등)	100명
행사운영	읍면동 자원봉사자	부스운영, 질서유지 등	200명
	모범운전자회	교통통제 및 주차 지원	50명
	새마을교통봉사대		20명
합 계			821명

자료 : 이종주(2020). 『화성 능행 재현행사의 무형문화적 가치 시론: 정조 능행과 재현행사의 문화 상징적 의미』를 토대로 재작성.

■ 축제퍼레이드 시민 경연 프로그램

-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조선백성 환희마당’은 1795년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을 재현한 2019 정조대왕능행차의 본 행렬에 앞서 펼쳐지는 시민 경연 퍼레이드임
- 음악, 춤, 퍼포먼스, 거리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경연 대회 형식이며, 행렬에 맞추어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왕의 행차를 환영하고 함께 즐긴다는 취지로 공연이 진행됨

■ 정조대왕능행차 길 체험순례 활동

- 2004년 수원문화원 주최로 학생들의 정조대왕능행차 길 체험순례를 실시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효(孝) 문화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임
- 참가자들은 학예사의 해설을 듣고, 활쏘기, 무예24기 등을 체험하며 59.2km를 완주함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때의 체험순례 활동

- 수원시·서울시가 공동 주최, 정조대왕능행차 길 체험순례에 서울시에서 80명, 수원·기타 지역에서 160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함<sup>39)</sup>
- 3박 4일 일정 진행,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안양과 화성(현릉원)을 거쳐 수원 화성에 이르는 62.2km 구간이었음

[그림 4-4] 정조대왕능행차 길 체험순례 사례



자료 : 수원문화원(<http://www.suwonsarang.com>)

39) 선발기준은 1단계 연령층, 2단계, 참가횟수, 3단계 최소연령 기준, 4단계 참가신청 및 참가비 입금일, 5단계 지역별 배분임



### 3) 종합분석

####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 전환

- 조선시대 능행은 왕에게는 제의이자, 백성과의 소통의 제전 → 현대의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은 외형적 복원을 넘어, 정조 능행이 가진 소통의 정신을 재현
- 정조대왕의 ‘사도세자 맞이’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를 위로하는 의식 → 현대의 ‘정조 맞이’는 정조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의 축제

#### ■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공동체적 가치) 공동재현 행사 주체가 시민주도로 변화하고 있음
- (사회통합적 가치)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재현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확인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화성시·수원시·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음
- (문화적 가치) 정조대왕능행차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창덕궁,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월행음묘정리의궤』 등을 바탕으로 현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복원하여 국내 최대의 왕실 퍼레이드로서의 위상을 정립함

[그림 4-5] 정조대왕능행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공동체적 가치	사회통합적 가치	문화적 가치
 <p>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코스</p>	 <p>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용건로 구간</p>	 <p>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의곡인삼길</p>
<p><b>공동재현 행사 주체가 시민 주도로 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li> <li>▪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li> <li>▪ 수원시 시민추진위원회 활동</li> </ul> <p>▶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시</p>	<p><b>4개 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서울·수원구간 공동재현</li> <li>▪ 2017년 전 구간 재현(화성시 참여)</li> <li>▪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li> </ul> <p>▶ 여러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이 능행차를 공동체 기반의 무형유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에 기여</p>	<p><b>정조대왕능행차의 현대적 부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기록유산 등을 토대로 재창조</li> <li>▪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li> <li>▪ 의식, 복식, 음식 등 관련 문화 복원</li> </ul> <p>▶ 세계기록유산을 토대로 능행차를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p>



## 2. 경제적 가치평가 필요성 검토

### 1) 도입 필요성

#### ■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필요성 증대

- 무형문화유산은 소비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재생산이 가능한 무한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등 문화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함(임재해, 2004)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원형 소재의 발굴 및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존재함(한희정 외, 2016)
-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우, 역사적 기록물 등의 고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검토한 사례들은 제시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가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례가 거의 없음

#### ■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유네스코 등재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가 가능함

- 문화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 등 정성적 가치는 개인마다 기준이 상이하나, 경제적 가치평가는 가치의 계량화를 통한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다수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경제적 가치평가의 활용이 필요함
- 다만,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관련한 상반된 견해가 있음
  - 일부 연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할 경우, 타지역의 유사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함<sup>40)</sup>
  - 반면, 문화유산의 도덕적·윤리적 가치만을 인지할 경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관광자원 생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간과할 수 있음(Masoud et al., 2019)
-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 기준 분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40) 무형문화재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 창출 목적의 무분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경계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음(류정아, 2006; 2009). 류정아(2009)는 문화유산이 관광자원화 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호혜적 가치가 관광효과 증진을 위한 대상적 가치로 변화함을 지적함

## ■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가치 제고 효과

-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무형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경제적 편익 창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음(한상우, 2018; 한희정 외, 2016; Hafstein, 2009)
  -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한 공연 관람 및 유적지 방문 활성화 등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효과 추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가능함
  -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는 신화·전설·연희·춤·민요·구비문학 등을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의 소스로 활용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적용방안

### ■ 경제적 가치평가 도구 개발 및 고도화 필요

- 선행연구에서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지닌 경제적 가치 항목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내용을 선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정
  -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은 소비의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보이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비시장재화 가치 추정법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임
  - 문화유산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선택가치·존재가치·유산가치) 지불의사액, 문화유산 관련 축제 개최의 비용-편익,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등 정량적 분석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실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도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연구 설계 방식에 따라 추정 결과의 변동성이 심화하고, 단순 기초통계량에 근거한 분석으로 결과 해석에 편이가 발생하는 등 선행연구의 한계가 존재
  - 문화유산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문화유산 소비 경험 등에 따라 문화유산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는 상이하고, 내생성 문제로 추정계수의 편이가 발생
  - 조용준(2015)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수원 구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수원시가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함

〈표 4-2〉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평가 선행연구

구 분	저자	방법론	분석대상 및 내용
국내사례	김정현·박용순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단계 가상가치평가법(CVM)</li> <li>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수원화성 무예24기</li> <li>수원화성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역사적·예술적·체육적 가치 경제성 평가</li> <li>무예24기 보존금액 지불의사액(7,810원) 추정하고, 재정투자의 타당성 입증</li> </ul>
	조용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편익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정조대왕능행차(수원 구간)</li> <li>정조대왕능행차(수원 구간)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할 경우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li> <li>지역 범주에 따른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추정하고, 최적 개최안(구역) 선별</li> <li>수원시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의 경제성이 가장 높게 도출</li> </ul>
	허중욱·신동주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분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CVM)</li> <li>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강릉단오제</li> <li>강릉단오제의 보전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li> <li>연간 34억원~96억원 범주에서 강릉단오제 보전 및 개선가치 추정</li> </ul>
	류정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연관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청도소싸움</li> <li>청도소싸움 축제에 참여한 내외국인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리</li> <li>1999년부터 2006년까지 축제일수 및 방문객 수 변화를 반영</li> </ul>
	심상화(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중개방형 가상가치평가법(CVM)</li> <li>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강릉단오제</li> <li>방문자의 특성이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분석</li> <li>강릉단오제 원형 유지를 위해 축제기간 최대지불의사액은 28,601백만 원으로 기존 수입(2018년 1,041백만 원)을 상회</li> </ul>
	김남일(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통계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강릉단오제</li> <li>지역 및 외지 상인들이 상업활동 할 수 있는 난장분양 확대, 축제상품 개발,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지역 경제효과 정성적 서술</li> </ul>
해외사례	Masoud et a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이란 이스파한(Isfahan)의 무형문화유산</li> <li>무형문화유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객의 관광의향 및 인지도 정성평가</li> <li>음식만들기, 지역 특산품 시식, 전통 의약품 체험, 전통 공예 체험 등 대상으로 관광 우선순위 분석</li> </ul>
	del Barrio et a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스페인의 문화축제</li> <li>문화축제에 대한 3가지 경제적 가치평가 기준 제시(개인별 지불의사액, 경제적 영향, 효율성 평가 등)</li> <li>WTP 추정법, 산업연관분석 활용한 직간접효과 및 유발효과 계측, 문화축제 조직 기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수 및 생산함수 추정법 등 소개</li> </ul>

###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충족여부 검토

#### 1) 검토 개요

##### ■ 등재기준 충족여부 검토 개요

- (목적)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가치와 의미를 해석해내고,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형식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방법)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유산가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함
- (평가 기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을 적용함
  -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기준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치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세계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 (기준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기준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2) 정조대왕능행차의 등재기준 충족여부 검토 및 보완사항

##### ■ (기준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sup>41)</sup>

- 무형문화유산의 기본 정의에서 강조된 것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과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임
  - 이러한 정의 하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현대까지 꾸준히 전승되어 온 전통 의례 및 제전, 축제 등이 이에 포함됨
- 정조대왕능행차는 조선 정조 시기에 있었던 현릉원 행차를 현대에 재현하여 서울, 화성, 수원

41) 유네스코 협약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인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함

- 등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행차 축전으로서 본래적 의미는 추모와 효의 실천 및 교육과 행차 과정 속에서의 민의 수렴과 통합임
- 지역민의 입장에서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 구경꾼 또는 상인·격쟁인, 상업적 이익의 추구자 등으로 참여하며 매년 봄에 반복되는 국가적 조상의례를 제전 또는 지역의 축제로서 수용했던 측면이 있었음
  - 다만, 능행차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실행되었고,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이 준비하고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 성격’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현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부합함
- 1960년대부터 수원을 중심으로 능행차의 일부가 되살아났고, 특히 지역 내 학생들이 가장행렬 등으로 재현하였음
  - 1970년대에는 수원시에서는 전통 문화제 창안을 목표로 삼았고, 수성고의 이흥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시민적 행사로 만들었으며, 현재 공동재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화성시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의 개최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보완사항)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조대왕능행차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현대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제전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준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세계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 정조대왕능행차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행차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 사랑의 마음(효)을 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의례였음
    - 자기 부모를 아끼는 마음과 부모가 자신을 아껴준 마음을 타인들에게 확장해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한 매우 잘 짜여진 사회적 의례임
    - 따라서,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전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인류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현재, 정조시대 능행차에 담고자 했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음

- 또한, 정조대왕능행차는 국가지도자와 시민 간 소통의 창구이자 새로운 도시건설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담겨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음
  - 정조대왕은 행행 중에 3천355건의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錘)을 처리함
- (보완사항)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통해 본래 능행차의 의미가 잘 담겨있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 대대로 전승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 ■ (기준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정조대왕능행차의 공간, 행차 의식 관련 문화 등이 계승 및 보존되고 있음
  - 능행차의 공간인 수원화성, 화성 용건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능행차의 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또한, 능원행의 기록화인 「화성능행도병」 또는 「화성능행도」가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보존되고 있음
  - 정조대왕능행차를 지자체의 후원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매년 실행해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됨
- 즉, 정조대왕능행차를 통해 관련 의례, 음식, 복식 등을 지속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는 확실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보완사항)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이전에 문화재청 및 관련 시·도가 공동으로 능행차 보존 및 재현과 관련된 조례 및 특별법 등의 공동발의 및 제정을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리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다양한 시·군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

### ■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정조시대능행차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재확인하고, 그 가치를 현대사회에서도 공유할만한 것인지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함

- 매년 한차례 지자체와 기획사의 주관하에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아닌 지역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행되는 능행차가 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전 인지 동의’ 과정이 신청과정의 참여보다 더욱 중요함
  - ‘사전 인지 동의’와 참여를 동시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웹이나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하고 피드백을 받는 일, 창의적 전승의 아이디어가 담긴 참여방안을 제안받는 일, 작은 아이디어라도 실제 행차 축제 때에 참여해 구현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열린 행차가 되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필요함
- (보완사항)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 동의 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망을 대외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함
  - 공동재현 행사개최를 위한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 간 성공적 협업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정조대왕능행차 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다양한 활동을 부각시킴
- (기준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은 전승공동체 지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보수적 관점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위한 요청서에서 전승공동체 지정 문제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조대왕능행차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보완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시도(경기도)무형문화재 신청 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sup>42)</sup>

42) 함한희(2020a). 『‘정조대왕능행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가치조사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됨





## 제 5 장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1. 기본방향 및 전략
2.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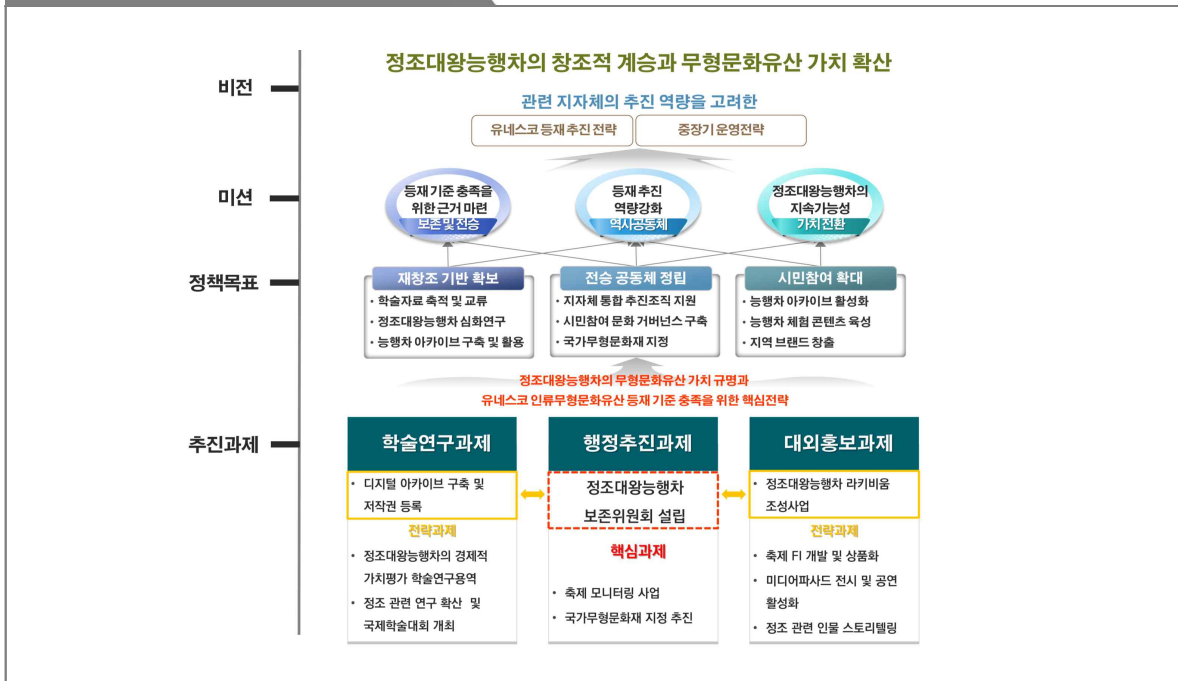


# 제5장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방안

## 1. 기본방향 및 전략

- 본 과업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와 10개 추진과제를 제시<sup>43)</sup>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첫째, 재창조 기반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과제, 둘째, 전승공동체 정립을 위한 행정추진과제, 셋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대외홍보과제를 수립(그림 5-1)
  - 추진과제는 학술연구, 행정추진, 대외홍보 차원에서 핵심과제, 전략과제, 연계과제로 구분

[그림 5-1] 비전 및 미션



43) 10개 추진과제 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은 p57의 '정조대왕능행차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 현황'에 명시함

## 2. 주요 추진과제

### 1) 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 설립

#### ■ 사업배경 및 목적

- 공동재현 행사의 추진조직은 지자체 간 공동개최 추진협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형태는 협약의 법적효력 미비, 업무추진 협력 미흡 등으로 공동체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에 한계
-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이는 관 주도 추진 형태의 한계로서 공동체성을 가진 시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민주도의 상향식 추진조직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조대왕능행차를 지역행사로 인식하는 시민의 비중도 아직 낮은 편임

#### ■ 사업여건분석

- 수원시는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2018년 '수원화성 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
- 2018년 경기도, 서울시, 화성시, 수원시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업무협약을 체결

#### ■ 사업내용

- 경기도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참여 지자체 간 광역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지자체는 정조대왕능행차 시민추진조직 구성을 추진(예: 화성 효 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 지자체 간 광역적 협의체는 시민추진조직 중심의 '(가칭)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콘텐츠 재생산 및 확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합적으로 추진

#### ■ 기대효과

- 정조대왕능행차 보존, 교육, 행사, 학술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 가능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동력 확보

## 2)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Larchiveum) 조성사업

### ■ 사업배경 및 목적

- 최근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수집·보존·정리하고, 시민들이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무형유산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키비움 조성이 필요함
  -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식자원으로 수집·제공하는 복합문화정보센터 개념임
  -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은 능행차의 역사적 의미와 전승 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시민 주체의 전승공동체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 사업여건분석

- 정조대왕능행차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월행음묘정리의궤』 등의 기록유산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은 관련 문헌과 시각자료에 근거하여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을 복원하였음
-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의미, 행차 의식, 문화 등에 대해 개별 연구자와 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음

### ■ 라키비움 ■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정보센터로서 기능을 공유하고, 제한 없이 정보의 검색, 이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공간이다. 최근 라키비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가 되면서, 정보자원을 함께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문 및 문화발전, 지식향상 및 평생교육의 기능 담당, 지역사회 문화 생산 및 활용 등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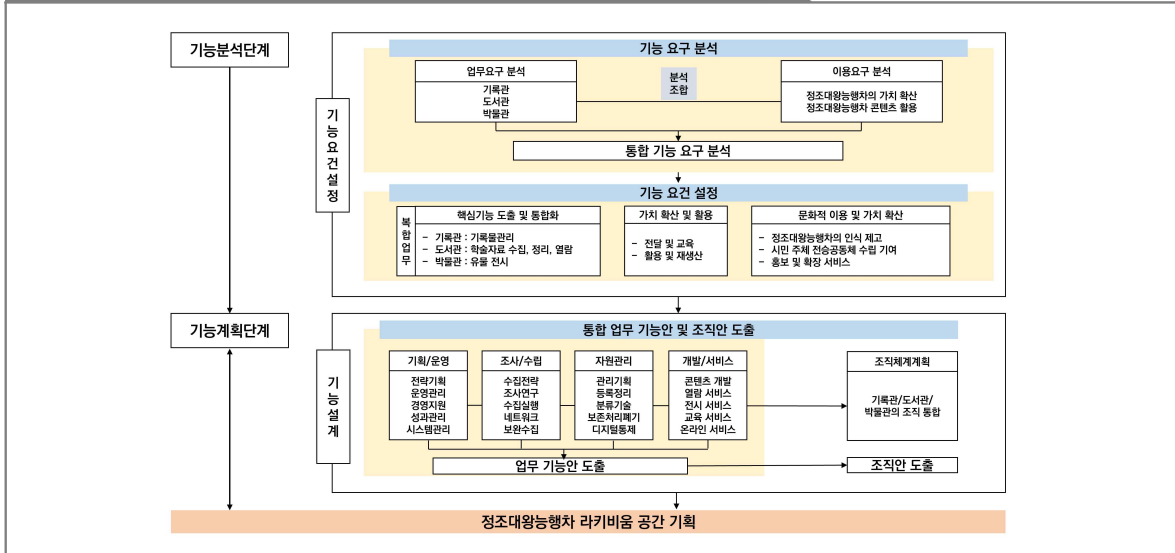
자료 : 박옥남·박희진(2017). “국회도서관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 한산모시짜기, 기지시줄다리기, 제주해녀문화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전승 지역을 기반으로 주로 박물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전승공동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히 전시 기능을 강조하는 박물관보다는 능행차를 통해 생산된 각종 유물과 기록물들을 통합하고,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라키비움 형태가 적합함
- 최근 기록물, 유물 등 아날로그 역사자원에 대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소장하는 기관들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면서, 국내에서도 라키비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이 대표적이며, 공공 및 민간의 주도로 라키비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실정임

## ■ 사업내용

-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은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각종 기록물들을 수집·보관하고, 전시 기능과 소장자료 이용을 하나의 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지 검토
-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의 공간기획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업무기능과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기능분석 단계와 기획/운영, 조사/수립, 자원관리, 서비스 등 업무 분장 및 조직체계를 설정하는 기능설계 단계로 구분함
-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의 공간구성은 기록관, 전시실, 도서관,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됨
  - 기록관은 보존 가치가 높으나 훼손 및 유실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게 보관이 필요한 중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온·습도계, 항온 항습기, 자동 소화장비 등을 구비함
  - 전시관은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유물과 능행차 공동재현 관련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수시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공간을 마련함
  - 도서관은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문헌 및 학술자료를 시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며,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을 위해 세미나실을 조성함
- 또한, 기록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칭)정조대왕능행차 사이버 역사관을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을 시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그림 5-2] 정조대왕능행차 라키비움 개발절차 예시



자료 : 최영실 · 이해영(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을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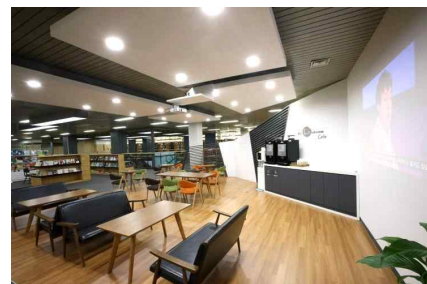
### ■ 기대효과

- 흩어져 있는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기록물과 유물을 한 곳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보존기능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함
- 정조대왕능행차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 퍼레이드 특성상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였으나 라키비움을 통해 시민들이 상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록물 재생산과 공동체적 가치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 ■ 사례 : 원자력 라키비움 ■

2014년 7월에 구축된 원자력 라키비움은 국내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 라키비움으로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록관에서는 연구원의 기록물(약 19,000건)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연구 노트도 DB화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원자력 라키비움은 과거 2년 동안 북콘서트, 국제세미나, 동아리 전시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간활용 및 운영방식에서 모범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다.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atomkaeri>)



#### 원자력라키비움 Atomic Energy Lachivium

가치있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We provide right information for right researchers at right time.

소중한 연구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We safely preserve KAERI's research archive.

연구자선의 가치를 높입니다.  
We enhance the value of KAERI's research records.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한 신시공간. 각 영역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기능을 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

**〈표 5-1〉 국내외 주요 라키비움 도입사례**

구분		운영기관	개요
국내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콘텐츠 활성화와 문화복지실현을 위해 2013년 12월 13일 개소</li> <li>안내공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초록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영상 및 홍보, 문화 관련 도서 및 자료 구축, 콘텐츠 게임 체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li> </ul>
	성평등 도서관 '여기' 라키비움	성평등도서관 '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단체 활동자료, 여성운동 현장자료, 공공부문의 여성정책 실행 자료 등 약 1만여 점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시민들과 나누는 공간으로 휴게공간, 열람실, 서가, 세미나 및 스터디 공간 구축</li> <li>도서관 기능 외 기록 보존 연구, 전시 기능을 통합하여 극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립미술관과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seMA Branch 갤러리' 조성</li> <li>남성과 여성이 실질적 평등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며 공유하는 도서관이며, 성평등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li> </ul>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원 라키비움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저널, 포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장소로서 2015년 11월 25일 개관</li> <li>아시아 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파크와 수집 관리보존을 위한 문화자원센터, 아시아문화연구소로 구성</li> <li>'현대적 아시아 문화예술'을 수집하며 수집된 자원을 바탕으로 열람, 관람, 체험의 복합적 플랫폼 제공</li> </ul>
국외	스미소니언 재단 Collection Search Center	스미소니언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미소니언 재단 내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등 다양한 연구 관련 기관 보유</li> <li>모든 직원들이 'Collection Search Center'를 통해 재단에 속한 모든 장서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통일된 게이트웨이를 제공</li> <li>역사적 자료들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디지털화 추진</li> </ul>
	예일대학교 The Office of Digital Assets and Infrastructure (ODAI)	예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일대학교의 ODAI는 대학 내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한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전시 등의 오디오/비디오 자료들까지 관리</li> <li>2012년 예일대는 기존의 ODAI를 YDC2로 이름을 변경하고 예일대 내의 소장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li> </ul>
	에딘버러 대학교 The Centre for Research Collections (CRC)	에딘버러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딘버러 대학은 The Centre for Research Collections (CRC)를 통해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li> <li>'Musical Instrument Collection'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실물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Lothian Health Service Archive에는 NHS 병원의 지역 기록물과 실물 소재들이 전시</li> </ul>

자료 : 박옥남·박희진(2017). 『국회도서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 3)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저작권 등록

#### ■ 사업배경 및 목적

- 정조대왕능행차는 조선 정조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그리고 재현된 시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현대까지의 변화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 무형문화유산은 가변적인 성격이 강해 시공간에 따라 훼손 및 변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람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원형 보존이 어려움
  - 하지만 국내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정립된 방법론 및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디지털 아카이빙<sup>44)</sup>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무형문화유산의 접근방식의 패러다임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우 공동재현 행사를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적절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함
  -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인정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함

#### ■ 사업여건분석

- 정조대왕능행차는 원형으로서 다양한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으며, 변화 양상에 관한 기록도 생산되고 있어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에는 능행차 의식절차, 행사 관련 정보 등의 문자 기록과 행사 장면, 행사에 쓰인 도구 등을 표현한 그림이 기록되어 있음
  - 정조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와 근현대까지의 정조대왕능행차의 변화 양상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음

44) 아카이빙(Archiving)은 자료를 영구적인 보관 또는 향후 검색,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정리·보관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디지털 아카이빙은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국악원 등임<표 5-1>

<표 5-2>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구분	개요	주요 이미지
<p><b>국립무형유산원</b> <b>‘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전시, 교육, 학술조사연구, 기록화 정보와 국가무형문화재정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정보, 기증기탁, 외부자료 수집, 관련 콘텐츠 등 메타데이터, 도서, 영상, 음원,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형식으로 무형유산정보를 제공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플랫폼</li> </ul>	
<p><b>국립국악원</b> <b>‘국악 아카이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연간 1,200 여 회 이상의 공연·연구·교육활동의 결과물과 민간의 자료를 토대로 생산·수집한 기록물은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 등 38만여 점임</li> <li>• 수집한 자료의 세부정보를 정리하고, 디지털 변환 이후 체계적으로 보존함</li> <li>• 저작권을 확보한 자료를 선별 가공하여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li> </ul>	

자료 :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https://www.ihg.go.kr/>);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https://archive.gugak.go.kr/>)

### ■ 사업내용

- 정조대왕능행차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연구자, 지자체, 전승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룹을 구성함
  - 개별 기관이나 연구자,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기록자원들을 수집하기 위해 상호 협조를 구해야 함
  - 지자체는 시민영역에서 발굴 및 수집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빙 대상을 선정하고, 전승 주체와 지적재산권 범위를 협의함
  - 보존위원회는 정조대왕능행차를 기록화하고, 지자체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기록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표 5-3〉 정조대왕능행차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거버넌스 그룹별 역할

그룹	역할
시민	• 지역 내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및 수집
연구자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수집, 1차 검증
지자체 (전승 지역)	• 시민/연구자 그룹에서 발굴 및 수집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2차 검증 • 검증 완료된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 정조대왕능행차 전승 주체(단체)와 지적재산권 협의
전승 주체(단체)	•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록화 •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관련 기록물 제공

- 정조대왕능행차를 디지털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한편 디지털화 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를 생성함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무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sup>45)</sup>를 구축함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조대왕능행차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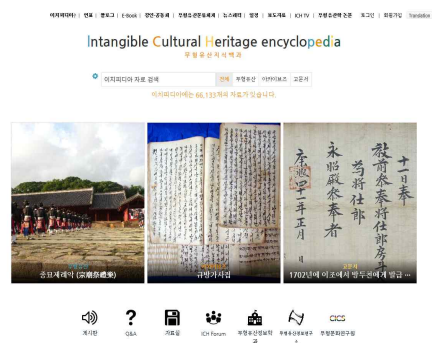
■ 기대효과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훼손 및 변질에 대비하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창출을 통해 전승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함

■ 사례 : 이치피디아 ■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에서 개발한 이치피디아(ICHpedia)는 한국의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약 7만여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이치피디아라는 이름은 I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와 PEDIA (encyclopedia)를 결합해서 만들었고, 번역하면 무형유산 백과사전이라는 뜻이다. 현재 30여 명의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며, 편집도 가능하다.

자료 : 이치피디아(<http://www.ichpedia.org/>)



45)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의 지식구조를 밝히는 것으로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세화하고 이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이며, 이를 통해 컴퓨터가 정보체계를 해석·이해·처리할 수 있도록 특정 영역의 지식체계를 모형화하는 것임(한희정 외, 2016)

#### 4) 정조대왕능행차의 경제적 가치평가 학술연구용역

##### ■ 사업배경 및 목적

- 시민들이 정조대왕능행차를 지역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적 측면에서 객관적 가치가 규명될 필요성이 있음
  - 무형유산협약 2조 1항의 내용과 같이<sup>46)</sup> 정조대왕능행차를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 필요
- 정조대왕능행차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시장 재화와 달리 본연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 가치평가가 어려움
  - 정조대왕능행차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 부재하고, 개인별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전 및 전승함에 따른 가치가 상이함
  - 특히, 정성적 평가만으로는 정조대왕능행차의 비사용가치를 잠재적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문화유산 보전 및 유지를 위한 타당성 마련에 한계가 있음
- 문화유산은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재화에 비하여 가치평가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름
  - 문화유산은 특정인의 소비를 배재할 수 없고(비배재성), 특정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비경합성) 공공재적 성격을 보임
-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이용가치(use value) 및 비이용가치(non-use value)로 분류
  -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효용 체감을 기준으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하고, 이는 공공재 및 환경재의 총 경제적 가치개념과 유사<sup>47)</sup>
  -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는 비시장재화 가치 추정방법임과 동시에 이용가치와 다른 비이용가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함

46)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47) 본 연구는 정연정·공기서(2007)의 문화유산 가치 분류기준을 참고하되, 공공재로서의 총경제적 가치개념은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한 안소은 외(2010)를 참고하였다. 안소은 외(2010)는 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구분하였으나, 문화유산의 가치를 분류한 정연정·공기서(2007)는 사용 시점(현재, 미래)을 기준으로 가치를 분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을 내포한 선택가치는 가치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양쪽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문화유산의 가치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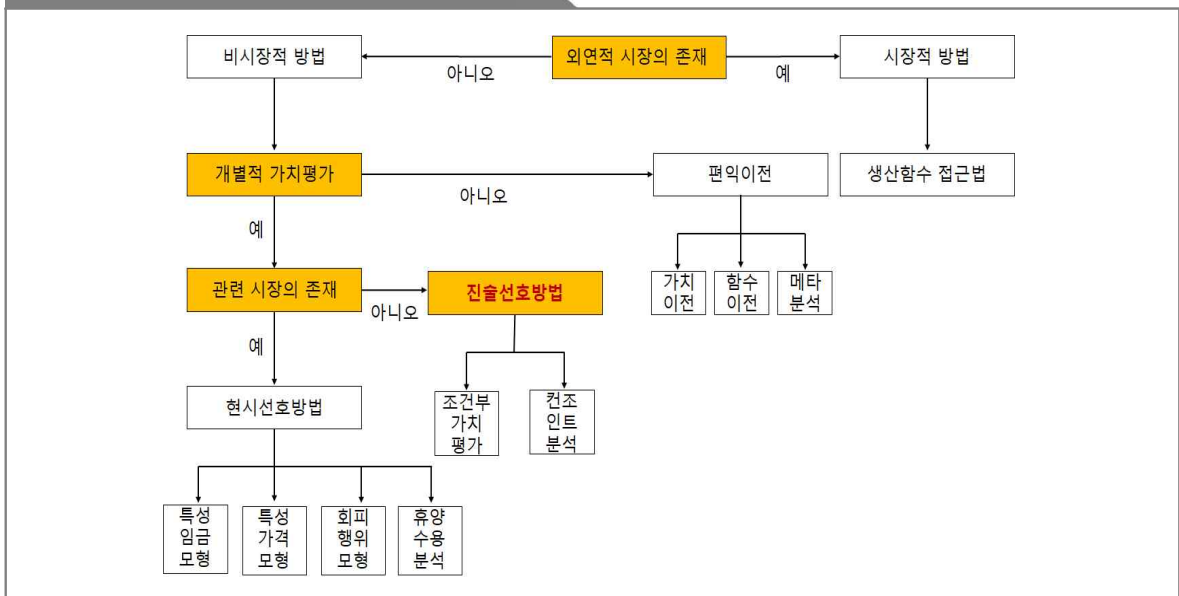
구분		구성요소
이용가치 (use value)		•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보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사회적 편익
비이용가치 (non-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 근시안적으로 문화유산자원을 이용 및 방문할 계획이 없으나, 미래에 활용할 가능성을 가상하고, 문화유산자원을 보전함에 따른 만족감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 선택가치와 달리 미래에도 문화유산자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문화유산 자원이 보존되는 것만으로 느낄 수 있는 효용 가치
	유산가치 (bequest value)	•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자원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치

자료 : 정연정·공기서(2007).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청주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 사업여건분석

- 무형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진술선호방법 중 조건부가치평가(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와 컨조인트 분석이 대표적임(그림 5-3)
- 특히 CVM은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가상의 시장을 제시하고, 계량경제 기법으로 개인의 후생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

[그림 5-3]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 개요



자료 : 안소는 외(2010), 정기호(2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 CVM에 활용하는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분으로 구성하고, 올바른 설문지 작성 및 설문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참고가 필요함
  - 설문지 구성 : ① 평가되는 환경재에 대한 설명과 응답자가 처한 가상적 상황에 대한 설명, ② 응답자의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유도하는 질문, ③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평가대상 환경재에 관한 선호, 환경재의 이용여부 등에 관한 질문

〈표 5-5〉 CVM 연구수행 가이드라인

구분	구성요소
정책시나리오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시나리오는 보수적으로 작성하여, 극단적인 응답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li> <li>• 최대지불의사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유도해야 함</li> </ul>
질 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질문은 양분선택형으로 하며, 대상 재화에 지불함에 따라 다른 대체재 소비가 감소하는 상쇄관계를 설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li> <li>•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도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함</li> </ul>
설문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 가치에 대해 시각적인 설명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함</li> <li>• 주요 질문은 '예'와 '아니오' 이외에 무응답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li> <li>• '예'와 '아니오' 응답은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설문 응답자는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함</li> </ul>

자료 : 정연정·공기서(2007)의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 ■ 사업내용

- (가칭)정조대왕능행차의 경제적 가치평가 학술연구용역 예산확보 및 용역 발주
  -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 시행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 입찰공고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실시 → 낙찰자 결정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예시
  - 내부위원 : 지자체 내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등
  - 외부위원 : 시의원(2명), 문화재·경제학 등 분야별 전문가

## ■ 기대효과

- 정성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네스코 등재 근거로 활용함

## 5) 정조 관련 연구 확산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사업배경 및 목적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시 유산에 관한 기록자료와 관련 연구성과가 첨부될 수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연구 및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고증과 실적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명확한 학술적 성과가 중요함

### ■ 사업여건분석

- 2016년 수원문화재단은 화성연구회와 공동주관하여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조대왕능행차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정조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나 유네스코에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학술적 성과가 요구하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 사업내용

- 구술자와의 인터뷰, 사회적 활용(어린이 교재 등)에 관한 자료, 세미나 및 워크숍 단행본, 유산 관련 발간자료 등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자료들에 대한 기초조사 수행
- 정조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학(경기학, 수원학, 화성학 등)을 연계하여 정조 관련 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 기대효과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 경기학연구센터 ■

경기도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된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도 역사와 문화가 가진 고유한 지역성의 발굴, 지역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고유가치 개발 및 활용, 도민의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 경기문화재단(<https://www.ggcf.kr/>)



## 6) 축제 평가·모니터링 사업

### ■ 사업배경 및 목적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시민참여 유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축제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축제방문객들은 기존 축제보다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형태의 축제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축제서비스 품질 개선이 중요한 실정임(추승우, 2018)
- 방문객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 사업여건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998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음
- 화성시 문화재단에서는 축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시민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이 주어지면 자율제안,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함

### ■ 사업내용

- 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가 설립되면 공동재현 행사의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위하여 (가칭) 축제평가사업팀을 개설하고, 전문가평가위원단과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함
  - 전문가 평가위원은 축제경력 10년 이상의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시민 모니터링단은 기존 지자체별 시민 모니터링단 또는 서포터즈를 활용함
- 축제평가사업팀은 축제평가를 총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조직과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 현장평가 관리 등 현장실무를 담당할 지원조직으로 구분함
- 사전평가-현장평가-사후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품질 개선방안을 도출함(보고서 발간)

### ■ 기대효과

- 전문가 집단 및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콘텐츠, 시설 및 환경 연출, 인력운영, 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홍보성과 등 축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가능



## 7) 축제 아이덴티티(Festival Identity) 개발 및 상품화

### ■ 사업배경 및 목적

- 정조대왕능행차의 축제 아이덴티티(Festival Identity, 이하 FI)를 개발하여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품화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FI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결하는 동시에 공동재현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

### ■ 사업여건분석

- 정조 문화권(수원, 화성, 오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FI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문화유산 도시로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 정조 문화권의 문화유산과 정조의 사상을 담은 FI 개발을 우선 추진함
- 정조대왕능행차의 FI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축제 운영의 재정 다각화를 추진함

### ■ 기대효과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지자체의 통합브랜딩 구축과 FI를 연계한 수익사업을 통해 축제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존도를 낮추고, 축제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5-4] 2017 제주들불축제 사례



자료 : 노트폴리오 홈페이지(<https://notefolio.net/1bo2bo/66469>)

## 8) 미디어파사드 전시 및 야간공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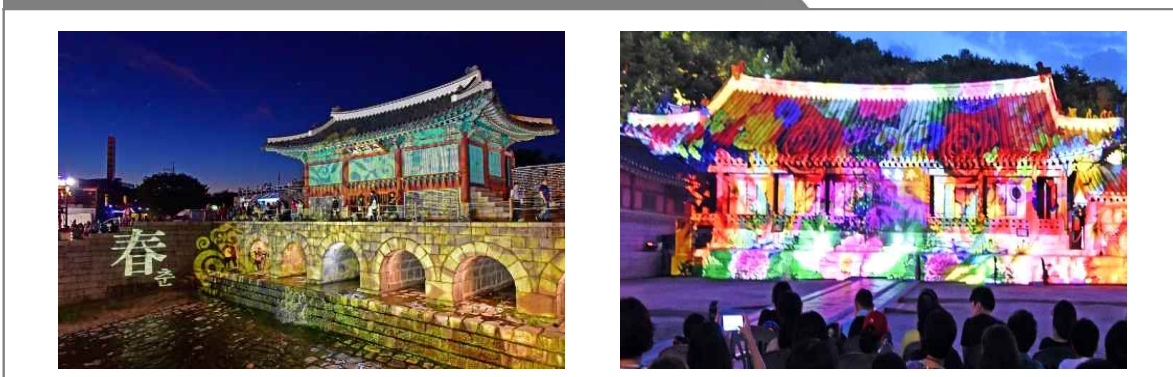
### ■ 사업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외벽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인 미디어파사드는 LED 조명을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임<sup>48)</sup>
  - 건축물을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sup>49)</sup>의 한 형태
- 정조대왕능행차의 짧은 행사 기간 제약을 극복하고,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특화된 콘텐츠 제공 필요

### ■ 사업여건분석

- 최근 경복궁, 광화문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개최하는 사례 증가
- 2019년 수원화성문화제의 수원등불축제 '정조 미래의 빛'에서는 등불과 미디어파사드, LED, 네온사인 등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전시를 개최
  - 정조의 스토리를 화홍문 벽에 연출하는 미디어파사드를 구현하고,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연 공연에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접목하여 극으로 재구성한 사례가 있음

[그림 5-5] 수원화성문화제 미디어파사드 적용사례



자료 : 수원문화재단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swcf\\_kr](https://blog.naver.com/swcf_kr))

48)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에서 인용함

49)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뜻함(채송화, 2012)

## ■ 사업내용

- 정조대왕능행차의 미디어파사드 활용은 축제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콘텐츠를 개발
  -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구간 중 핵심구간을 선정하여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전시 및 공연 개최 확대
  - 화성시는 정조 효 문화제 개최장소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야간공연 개최를 검토
- 다만, 문화재를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정조 관련 문화재에 미디어파사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야간 프로그램(예: 조선왕릉 야간 답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대외홍보 차원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구간이 아닌 지역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별 야간경관계획 및 관련 조례 등을 사전 검토

## ■ 기대효과

- 정조 관련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옛 건물과 어울린 현대기술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
-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무형문화유산 가치 확산

### ■ 사례 : 조선왕릉문화제 야간 프로그램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주최한 2020년 ‘제1회 조선왕릉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전통 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구릉, 서오릉, 선정릉, 세종대왕 영릉 등 서울 경기지역에 자리한 주요 7개 조선 왕릉에서 총 21개 시민 참여 문화 행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특히 서오릉(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공간인 왕릉을 야간 탐방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인 〈서오릉 야별행〉이 진행되었다. 또한, 세종대왕릉 영릉(경기도 여주)은 능 주차장에서 자동차 극장 형태로 국악 공연인 〈왕릉 음악회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 행사가 열렸다.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20.10.13.) 『문화재청, 조선왕릉문화제 첫 개최』.



## 9) 정조 관련 인물 스토리텔링

### ■ 사업배경 및 목적

- 정조 관련 역사적 인물(체재공, 홍국영 등)들을 정조대왕능행차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알려줌으로써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도입 필요
  - 최근 축제관람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감성적 소구력을 갖춘 스토리텔링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소비자의 체험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정조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시도된 적이 있으나 정조 관련 인물에 대해 주목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음

### ■ 사업여건분석

- 정조의 '수원화성' 축조에 의미를 두고, 정조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시도되었음
  - 수원시는 '수원화성'을 축조한 정조와 이를 건설한 정약용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 바 있으며, 2013년 수원화성박물관은 변암 체재공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음

### ■ 사업내용

- 정조 관련 인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통해 주요 스토리 테마들을 개발함
- 정조 관련 인물들의 스토리텔링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테마형 도보관광코스 개발, 가상 공간 및 영상작업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및 웹툰 제작, 문화공연 등으로 추진됨

### ■ 기대효과

- 정조대왕능행차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사례 :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 '다산선생과 노을자' ■

경기도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다산 유적지 일대에서 진행된 '다산선생과 노을자'는 다산 정약용의 스토리를 연극 형태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해설도 해주는 이벤트이다.

자료 : 실학박물관(<https://silhak.ggcf.kr/>)



## 제 6 장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 1. 결론

- 정조대왕능행차는 원형복원을 넘어 문화적 재창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중심의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정조대왕능행차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원형 복원한 것뿐만 아니라 정조의 사상을 현대사회에 전달하는 사회적 제전으로서 의미가 있음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중 다른 축제행렬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고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철학이 내포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 정체성을 인식하고 참여함으로써 현대문화로 창조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함
  - 정조대왕능행차가 지역 공동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중심의 열린 축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함
  - 즉, 정조대왕능행차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현대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제전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해야 함
- 지자체의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은 학술연구, 행정, 대외홍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학술자료 축적 및 교류, 정조문화 심화 연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의 문화적 재창조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행정추진 차원에서는 화성시, 수원시 등 지자체 통합 추진조직 지원, 시민참여 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명확한 전승공동체를 정립해야 함
  - 대외홍보 차원에서는 능행차 아카이브 활성화, 체험콘텐츠 육성,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함

- (기대효과)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국제적 가치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의 이해 증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등의 효과성이 있음
  - 따라서 정조대왕능행차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전 인류의 문화번영과 창의성 발현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 차원의 보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임
  -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에서 전 국민, 전 인류의 축제로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원행음묘정리의궤』 등과 함께 정조대왕능행차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다면 ‘정조문화권’이 세계적인 역사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임



## 2. 정책제언

- (핵심과제) 민관협력 기반의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주체 구축
  -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무를 전담하는 민간단체 ‘정조대왕능행차 보존위원회’를 구성을 핵심과제로 추진
  - 지자체 협의체 중심에서 학계,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민·관·학 연합적 열린 조직 지향
  - 지지체별 시민위원회 구성 → 로컬 네트워크 형성 → 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단계로 확대
- (전략과제) 정조대왕능행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라키비움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정조대왕능행차의 관련 기록물, 학술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들을 전략과제로 추진
  - 정조대왕능행차가 재현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콘텐츠의 재생산과 문화적·역사적 가치의 확산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조대왕능행차 관련 유물, 기록물과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학술자료 등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수집, 보관하고, 공간적 거점인 라키비움에서 교육 및 전시를 담당
- (연계과제)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등재 근거 마련과 공동재현 행사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정조대왕능행차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재현 행사가 지역 문화축제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세계문화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계과제로 추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충분한 학술적 성과, 시민들의 등재 필요성 사전 인지, 국가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등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정조대왕능행차의 공동재현 행사의 활성화로부터 시민참여와 무형문화유산 가치 재생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재현 행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정조대왕능행차 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정조문화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략임



## 참고 문헌

- 국립무형유산원(2016). 『제주해녀문화 전시 도록』. 국립무형유산원.
- 강민영(2004). 『奉壽堂 進饌과 洛南軒 養老宴의 音樂的 考察 :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 김광희(2014).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일(2009). “전통문화축제의 지역적 가치: 유네스코 무형유산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2), pp. 59-95.
- 김동현(2019). 『기지사줄다리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등재방안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09).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한 궁중 음식의 현재화와 상품화 전략” 『수원학연구』 2009(6), pp. 11-38.
- 김리완(2013). 『정보 디자인 관점으로 본 『화성행반차도(華城行班次圖)』의 연구』.
- 김문식(1997). 『18세기 정조 능행의 의의』.
- 김문식(2010). “홍경모가 기록한 정조의 화성 행차”. 『문헌과 해석』, 52, pp. 207-222.
- 김보경(2019). 『惠慶宮 洪氏 回甲宴의 宮中裝飾繪畫와 宮中床花 연구』.
- 김상보 · 이성우 · 한복진(1989).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조리면에서 본 죽상, 미음상 및 현릉원에서 상차림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4), pp. 333-341.
- 김용구(2016). “지속가능개발과 한국무형문화유산정책”, 『문화재』, 49(3), pp. 256-269.
- 김윤지(2016).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융합』, 38(3), pp. 201-226.
- 김인숙(2020). 『을묘년(1795) 화성 원행 시 정조복식 고증』.
- 김정현 · 박용순(2016). “CVM을 이용한 킬러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평가: 수원화성의 무예24기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28(10), pp. 209-227.
- 김준혁(2006).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했을까?』.
- 김준혁(2008a).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 김준혁(2008b). “문화도시 수원의 세계무형유산 만들기”, 『수원학연구』, 5, pp. 61-76.
- 김준혁(2016).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활용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과 도시재생”,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 19(2), pp. 39-70.

- 김준혁(2017). 『화성, 정조와 다산의 꿈이 어우러진 대동의 도시』.
- 김준혁(2020). 『리더라면 정조처럼』.
- 나경수(2012). 『진도 상·장례(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진도만가)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신청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 류정아(2006).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축제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8, pp. 39-57.
- 류정아(2009). “민속축제의 관광자원화 과정에 대한 비교문화적 고찰: 소놀이축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4, pp. 235-266.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8.04.02.).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9.12.6.)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탈춤」 선정』.
- 문화재청 보도자료(2020.10.13.) 『문화재청, 조선왕릉문화제 첫 개최』.
- 문화재청 보도자료(2020.11.17.).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 판정』.
- 박상미(2015). 『한글 무형문화재 지정 방안 연구보고서』.
- 박상미(2019). 『남북경협 한복·자수문화 교류방안 연구용역』.
- 박영목(2010). 『정조의 복수 그 화려한 여드레』.
- 박옥남·박희진(2017). “국회도서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pp. 201-226.
- 박정은(2017).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다양성과 현재성-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중심으로-”, 3, pp. 225-244.
- 백영자(1997).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 서광열(2018). “정조 선황제의 화성 능행차 효 순례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4), pp. 129-142.
- 수원화성박물관(2015).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 수원화성박물관(2016). 『정조대왕의 수원행차도』.
- 송시은·공용택(2019). “주민주도형 전통문화축제의 문화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 태국 송크란 축제 사례로”. 『문화산업연구』, 19(3), pp. 27-35.
- 송예지(2014). 『역사적 장소 탐방 수업을 위한 학습 활동지 개발 :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 송혜진(2009).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무대와 공연 요소 분석”, 『공연문화연구』, 18, pp. 413-447.
- 송혜진(2010).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봉수당진찬(奉壽堂進饌)'의 공연사적 의의”, 『한국어와 문화』, 7, pp. 23-50.

- 신동욱(2019). 『무형문화유산 가치 변화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상화(2009). “전통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결정요인: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1(4), pp. 41-56.
- 심승구(2009). “1795년 정조의 8일간 화성행차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화”, 『수원학연구』, 6, pp.73-88.
- 안소은·배두현·전철현·윤정호(2010).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염은혜(2017).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6학년 음악과 융합수업 연구 : 정조, 8일간의 화성행차를 중심으로』.
- 유봉학·김동욱·조성을(2001).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 유재빈(2018). “『園幸乙卯整理儀軌』 圖式, 그림으로 전하는 효과와 전략”, 『규장각』, 52, pp. 187-217.
- 이경엽(2014).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재인식과 계승 방향”, 『남도민속연구』, 29, pp. 249-284.
- 이미연(2014). 『화성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연구』.
- 이상각(2007). 『이산 정조대왕-조선의 이노베이터』.
- 이성우·한복진(1989).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나는 음식명, 식기명, 조리기구명”,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4), pp. 343-345.
- 이왕무(2017). “정조대 始興 園幸路 구성과 운영”, 『장서각』 38, pp. 316-340.
- 이왕무(2020). 『정조 대왕 능행차의 역사적 성격』.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구 세미나 자료집.
- 이종주(2020). 『화성 능행 재현행사의 무형문화적 가치 시론: 정조 능행과 재현행사의 문화 상징적 의미』.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구세미나 자료집.
- 이혜영·심하진(2002). “정조의 화성행차에 나타난 의장과 복식에 관한 연구”, 『패션 비즈니스』 6(2), pp. 29-40.
- 이흥구(2008).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연시고』.
- 임돈희·Roger L. Janelli(2019).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비교와 담론』, 대한민국 학술원논문집.
- 임미선·송지원·김중수·노영구·김호(2000).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 임재해(2004). “문화자산으로서 민속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 『비교민속학』, 27, pp. 17-89.
- 임재해(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39, pp. 439-491.
- 임혜련(2018). 『1795년(정조 19) 혜경궁의 화성 행차와 봉수당 진찬의 특징』.

- 장정아(2008). “민간문화유산”에서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1), pp. 167-208.
- 전철수(2018).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융합적 변화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9), pp. 441-447.
- 정기호(2011). “한국 중소형 일체형 원자료(SMART)의 사회적 가치 평가: 비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 10(2), pp. 55-75.
- 정연정·공기서(2007). 『문화재 가치추정에 관한 방법론 검토: 청주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충북연구원.
- 정해득(2016). 『1795년 을묘년 원행의 성격 고찰』.
- 조병로(2005). “조선후기 현릉원 원행과 역참”, 『수원학연구』, 1, pp. 133-185.
- 조용준(2015). 『정조대왕 수원화성 행차 재현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 추승우(2018). “Kano 모델 및 PCSI 지수를 활용한 지역축제 서비스품질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4(1), pp. 85-104.
- 채송화(2012).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기반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 최동균(2016). 『정조반차도: 8일간의 화성 행차』.
- 최성환(2016).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6, pp. 125-166.
- 최여진(2002). 『華城陵幸圖에 대한 繪畵性 研究』.
- 최영실·이해영(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pp. 457-477.
- 최종호(2016). 『은산별신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기초연구』.
- 최지연·최성환·송화성·박갑선·이동인·조경신(2015). 『정조대왕 수원 화성 행차 재현을 위한 공동사업화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최홍규(2001). 『정조의 화성 건설』.
- 허용호(2003). “화성 행궁과 전통 연희”, 『정조사상연구』, 39, pp. 165-198.
- 허중욱·신동주(2010).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가치 추정”. 『관광연구저널』, 24(3), pp. 77-90.
- 한영우(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8일』.
- 한영우(2007). 『정조의 화성 행차』.
- 한희정·오효정·김태영·김용(2016).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pp. 95-134.
- 함한희(2019).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개정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함한희(2020a). 『‘정조대왕능행차’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가치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화성시.
- 함한희(2020b). 『정조대왕능행차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제고』.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구세미나 자료집.
- 황은주(2013).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 행차』.
- 황화석(2014). “지역축제 유형별 거버넌스 특성 비교-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대상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8(3), pp. 299-314.
- Arizpe, L. (200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ersity and coherence. *Museum international*, 56(1-2), 130-136.
- del Barrio, M. J., Devesa, M., & Herrero, L. C. (2012). Evalu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ase of cultural festivals. *City, Culture and Society*, 3(4), 235-244.
- Hafstein, V. T. (2009). Intangible heritage as a list. *Intangible heritage*, 142-175.
- Masoud, H., M. Mohammad, N. T. Farsani (2019). A study on tourists' tendency towar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n attraction (case study: Isfahan, Iran). *City, Culture and Society*, 17, 54-60.

#### 〈웹사이트〉

- 국가무형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국립무형유산원 디지털 아카이브(<https://www.iha.go.kr/>).
-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https://archive.gugak.go.kr/>).
- 경기문화재단(<https://www.ggcf.kr/>).
- 노트폴리오 홈페이지(<https://notefolio.net/1bo2bo/66469>).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수원문화재단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swcf\\_kr](https://blog.naver.com/swcf_kr)).
- 수원문화원(<http://www.suwonsarang.com>).
- 실학박물관(<https://silhak.ggcf.kr/>).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웹페이지(<https://ich.unesco.org/en/lists#2008>).
-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계리스트(<http://whc.unesco.org/en/list/stat#d1>).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 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 이치피디아(<http://www.ichpedia.org/>).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정조대왕능행차 홈페이지([www.kingjeongjo-parade.kr](http://www.kingjeongjo-parade.kr)).

텍스툼(<http://www.textom.co.kr/>).

한국원자력연구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atomkaeri>).

e수원뉴스(<http://news.suwon.go.kr/>).

KT 빅사이트 솔루션(<https://bigsight.kt.com>).



## A Study on Planning to list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Reenactment as th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which began more than 300 years ago,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preserves the thoughts of King Jeongjo. Currently, it is jointly hel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uwon City, Hwaseong City and Gyeonggi Province. To sustain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is a need for it to be registered under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rogram. Hwaseong City has been promoting the registration of King Jeongjo's trip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ince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lans to promote the registration of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as an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rough value assessment and feasibility analysis of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The study consisted of three stages: (1) To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used big data. (2) the analysis of tendency of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as carried out through a system overview, case study, and the review of the status of the registration. (3) the analysi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 was conducted by means of the valu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easibility of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value and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academic, administrative and marketing strategies were presented for the creative transmission of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and the value diffusion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rst, the academic strategies were framed by collecting the historical research related to King Jeongjo's culture, holding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evaluating its economic value, building digital archives and registering copyrights. Second, the administrative strategies were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nservation

committee, the promo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motion of festival monitoring. Third, the external strategies were forged with the Larchiveum project, festival identit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media facade and performance revitalization, and storytelling.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 Jeongjo Tomb Parad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local community and a foundation for cultural revitalization, along with the promotion of listing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Keyword**

King Jeongjo Tomb Parad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Ceremonial procession